

## 李明博 대통령 大韓言論 紙齡300호 축하메시지

# “경륜-혜안으로 正論주도 기대”

李明博대통령이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大韓言論' 紙齡 300호를 축하하는 특별메시지를 보내왔다.李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에서 발행하는 大韓言論의 紙齡 3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언론 정도를 걸 어온 원로 언론인들의 경륜과 혜안

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같은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大韓言論이 창간된 이래 현역 대통령이 특별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편집자〉



李明博 대통령

바랍니다. 그간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사회의 공론을 주도해 온 대한언론인회 회원 여러분이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언론 산업 역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항상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수반합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움츠릴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면, 언론산업은 미래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이자 신성장동력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류의 약진은 우리 문화가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언론의 300호 발행을 축하하며, 후원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대한언론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언론’의 300회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언론인회는 1977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의 언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령 300호를 맞아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론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언론은 인간의 정신을 계몽하고 인간을 합리적·도덕적·사회적 존재로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도구이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양심과 지성은 사회의 정체를 막는 소금이었고,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등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막중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

주화를 동반 실현하고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언론의 지성과 양심의 역할이 크다 하겠 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일류국가로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세계 경제 위기의 여진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수출 7위 국가로 올라섰고, 올해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유동적이고, 이상기후와 중동사태 등 여러 불가항력적 상황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년화두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진취적 희망을 공유한다면, 넘지 못할 난관은 없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언론의 새로운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같은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 國益 위한 史官자세 지켜갈 터

1977년 6월 활자판 소식지로 태어난 '대한언론'이 이번 3월1일자로 지령 300호를 맞이했습니다. 대한언론은 바로 우리 대한언론인회의 얼굴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300호가 태어나기까지 34년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회우 여러분, 그리고 광고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우리 얼굴을 가꾸온 제작진과 편집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대한언론은 창간 이래 단순히 친목단체의 회보에 머물지 않고 원로언론인들의 고견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

## 大韓言論 紙齡 300호 우리의 각오

론지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우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며, 역사의 기록자이자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익과 언론’, ‘위기의 한국진단’ 등을 주체



홍 원 기

- 본회 회장
- 大韓言論 발행 겸 편집인

로 하는 회우 칼럼과 전문가 논평을 게재, 한국사회의 현안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 다.

국내외의 언론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언론인회와 대한언론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급변

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화우들은 언론계 원로로서 할 말은 하고 쓸 것은 써야 한다는 사명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언론이 월간지라는 제한적 입지에서도 각종 뉴스와 정보를 KBS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진전입니다.

대한언론은 앞으로도 자유언론 수호와 국익을 위해 엄정한 사관(史官)의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언론의 미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대한언론인회의 밝은 내일이 곧 대한언론의 미래입니다. 대한언론의 지령 300호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우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正論直筆-소통...녹슬지 않는 펜

大韓言論 紙齡 3백호 그 어제와 오늘

대한언론인회는 1967년 6월 24일자로 '四.七구락부 소식지'를 창간한 이래 금년 3월 1일자로 월간 '大韓言論' 지령 300호를 기록한다. '四.七. 會報'(1979. 4. 7) '四.七. 言論人會報'(1981.4.25) '大韓言論人會報'(1988. 2. 15) '大韓言論人'(2005. 5. 1)으로 발행하다가 월간 '大韓言論'(2005. 5. 1- 현재)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했다. 정론지 '大韓言論'의 어제와 오늘을 간략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 四.七구락부 소식지로 첫 출발

'大韓言論'의 효시는 '四.七구락부 소식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 기념일에 출범을 본 四.七언론인회(현 대한언론인회)가 통신지 형태의 소식지를 내면서 부터다. 회보 제2호(77년 6월 24일) 역시 통신지 형태 3페이지 안에 창립축하연소식을 머리기사로, 본회 사무실을 신문회관 3층(8평)에 마련했다는 소식과 회원명단 등을 결들인 것이 그 전부였다

본회의 명칭이 1981년 四·七言論人會로 바뀌면서 회보도 1981년 4월 25일자부터 '四·七언론인회보'로 제호가 바뀐다. 이 무렵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정기간행물 등록(마 1629)을 마친 회보는 1979년 4월 7일자 제6호부터 타블로이드 4면의 어엿한 활자판 모습으로 발간되어 회우들로부터 호감을 샀다.

四·七언론인회보가 그 후 대한언론인



2011년 2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편집회의의 광경.

회보로 제호가 바뀐 것은 제30호(1988년 2월 15일자) 부터다. 1989년 2월 28일부터 월간 정기 간행물로 정착되면서 현역 언론인에 대한 관심과 발언도 잦아졌으며 제43호 부터는 전 언론계의 움직임을 그 저변을 심층적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 '실버 파이팅' 등 다양한 읽을거리

회보 '大韓言論'은 제230호(2005. 5. 1자)부터 '大韓言論'으로 제호를 바꾸고 지면도 종전 4면에서 16면(수시 증감, 현재 20면)으로 대폭 증면했다. 그 후 2005년 8월 1일자부터 '大韓言論'으로 제호를 바꾼 것은 소식전달의 범위를 높이고 지면 확장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기능적으

로 부응 하자는데 있었다.

2006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한언론인회는 회보의 위상 제고와 외연 확대를 목표로 제작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우선 편집방향과 콘텐츠가 크게 달라졌다. 편집체제 면에서 기사를 성격에 맞춰 섹션(Section)화 하였으며 외형적으로 보기 좋게 컬러풀(Colorful)하게 변화시켰다. '그때 그시절 녹취한국언론사' '나의 취재비화'가 인기리에 연재되었는가 하면 '미디어 시평', '대신 바로 잡습니다'와 같은 고정란은 제대로 된 매체비판의 저널리즘과 기록보존의 장이 없는 우리 풍토에서 이 역할을 맡고 기능 해 줄 신문은 우리 '大韓言論' 뿐이라는 회우들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 내용도 제호 '대한언론'에 걸맞게 1면에 무게 있는 시론(時論)을 실는 한편 '언론의 비판성'에 주안을 둔 문제의식으로 사회적 이슈에 충고 및 질타와 편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국익과 언론', '위기의 한국진단' 등 시사성 있는 칼럼 등 우리 '大韓言論'이 지향하는 건강하고 바른 논지는 대한언론인회의 정체성과 정론지로서의 성격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 정론지 '大韓言論'으로 지면혁신

'大韓言論'은 이밖에도 언론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랄한 비평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장과 논평, 그

리고 취재 비화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로 언론인들이 만드는 매체답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모양 있고 내실 있게, 그리고 품격을 유지해 옴으로써 사회 각계로부터 단순히 친목단체의 회보로서가 아니라 정론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10월호(235호)부터 새 편집체제에 의해 시작된 1면 권두칼럼은 우리 사회 이슈에 맞춘 이달의 어젠다(Agenda)로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회보의 성격상 사설(社說)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시론'은 왕년에 언론계에서 정론작필을 펼쳤던 논객들의 경륜을 펼치는 글마당으로 자리매김하여 회보의 방향성을 현장감 있게 제시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필자의 외연을 넓혀 교수 등 사계의 권위자들과 현역 논객들도 등장, 지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원로에게 듣는다' '온고지신' '건강칼럼' 등은 그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기사에 속한다.

## 인터넷신문도 제작계획

洪元基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특히 취임 이래 대한언론을 그 제호에 걸맞게 사회적 쟁점에 우리 목소리를 담는 등 참신한 읽을거리 개발과 함께 널리 보급선을 확대, 국회와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단체,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널리 배포하고 있다. 정론지 대한언론은 이제 원로 언론인들의 오랜 경륜 속에 살아 숨 쉬는 자유언론 창달에의 강한의지와 녹슬지 않는 펜의 진면목으로 보아 불원간 주간지로 발돋움해야 할 명제를 안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대한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만으로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화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대한언론의 인터넷 신문체제 구축은 그런 점에서 대한언론이 당장 새롭게 변신해야할 초미의 과제이자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라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욕심은 아닐 것이다. [4]

글 정문준 상임이사

## 大韓言論 紙齡 300호 기념 '한국의 포퓰리즘' 대 토론회

### 3월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서

요즘 한국사회는 온갖 포퓰리즘(대중영합인기주의)의 민연으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는 정치권과 언론의 시각도 보수와 진보로 엇갈려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대한언론인회는 '大韓言論' 지령 300호를 기념해 이 같은 한국사회의 '포퓰리즘 정치'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세를 집중 진단하고 그 치유책을 제시 해 보는 특별 대 토론회의 장(場)을 마련했습니다.

### 토론내용 및 행사계획

가.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오후 2시~5시 40분

나.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다. 주 제 : 위기의 한국 진단 '한국의 포퓰리즘'

1) 제1주제 : '한국정치의 포퓰리즘'

발표자 : 남시욱(세종대 석좌교수, 전 문화일보 사장)

토론자 : 성병욱(전 중앙일보 주필)

신대근(전 대구MBC사장)

2) 제2주제 : '우리사회의 포퓰리즘과 언론'

발표자 : 심재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토론자 : 최희조(중부대 초빙교수)

최흥재(공정언론 시민연대 정책위원)

3) 사 회 : 문명호(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토론 종료 후 회식 있습니다.

주최 : 大韓言論人會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實錄 한국언론사' 출판 안내

대한언론인회는 회우 여러분의 현역시절 취재비화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실록 한국언론사' 못 다 쓴 취재수첩'(가제)을 발간해 언론 사료로 영구 보존하고자 합니다. 집필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사항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집필내용 (취재비화, 특종보도 등) : 쓰고 싶은 내용을 200자 원고지 2장 내외로 요약

○ 신청 기한 : 2011년 3월 31일 (선착순 60명)

○ 필자 선정 : 간행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개별 통지

\*집필이 확정되신 분은 200자원고지 30장 내외로 2011년 6월 30일까지 원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발행 예정일 : 2011년 9월 30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사무실(732-4798)로 문의바람

大韓言論人會

大韓言論 紙齡 300호 各界 축하메시지

# “대한민국 이끌 나침반 역할을”

## 박희태 국회의장



月刊 ‘大韓言論’의 지령 3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月刊 大韓言論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社團法人 大韓言論人會 洪元基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月刊 大韓言論은 그동안 외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사회 현안에 대해 연륜을 바탕으로 삼아 심도 있는 분석으로 문제 해결의 이정표를 제시해주었고 내부적으로는 회원 개개인의 동정을 전해주는 등 언론계

선후배들 간의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月刊 大韓言論이 회원들 간의 즐거움과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역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언론계의 현안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공론의 장으

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첨단 과학과 기술력은 수많은 뉴미디어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미디어 빅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새로운 언론환경 속에서 앞으

로 月刊 大韓言論이 그동안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급속하게 변모하는 지구촌의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선도하여 ‘세계로의 대진출’을 달성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月刊 大韓言論 지령 300호를 축하드리며, 大韓言論人會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지난 1977년 6월 (사)대한언론인회 기관지로 첫 선을 보인 뒤, 중견 언론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 역할을 해온 ‘대한언론’의 지령(誌齡)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일간신문, 방송, 통신사 출신 언론인들이 주축이 된 (사)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은 그동안 녹슬지 않은 펜 끝에 깊은 경륜으로 정론직필의 언론의 사명을 드높였습니다.

모쪼록 대한언론이 지금처럼 한국 언론문화 창달에 귀감이 되고 협회지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론지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 높은 언론문화 창달과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앞장서는 대한언론인회의 月刊 ‘大韓言論’ 창간 300호를 축하드립니다.

그간 大韓言論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으로 독자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등불이자 소금으로서 진실을 대변하는 거울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大韓言論이 그 기수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독자와 함께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정론지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전재희입니다.

‘대한언론’의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님과 원로 언론인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언론은 이 시대의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써 그 위상을 확고히 해 왔습니다. 이는 창립 이래 34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을 누비셨던 원로 언론인들의 관록이 바탕이 되었고, 한국 언론의 나아갈 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오신 대한언론인회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반듯한 자리매김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때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로 젊은 언론인들의 귀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언론 300호 발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대한언론인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언론인회는 순חק규 민주당 대표에게 대한언론 300호 기념축사를 의뢰한바 당 방침으로 사양하기로 했으며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언론’은 원로 언론인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정론을 펼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물론 언론 진흥에도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언론 매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언론이 독자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대한언론 발간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언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호 한국신문협회장

월간 ‘대한언론’의 3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대한언론이 언론사 경영 및 취재 보도 현장에서 큰 족적을 남긴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의 회보일 뿐 아니라 시류를 정확하게 짚는 정론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언론은 1977년 창간 이후 지금까지 34년 동안 원로 언론인들의 경륜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한 미디어 시평, 논설, 논평 등을 꾸준히 게재해 후배 언론인들의 귀감이 됐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언론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역할을 멈추지 않고 500호, 1000호로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김인규 한국방송협회장

대한민국 公正言論의 標石 월간 ‘大韓言論’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大韓言論은 굴곡 많은 현대사를 슬기롭게 헤쳐 나온 선배언론인의 지혜와 열정이 녹아 있는 우리나라 언론의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후배들은 大韓言論을 통해 공정언론을 위해서는 절대 펜을 꺾지 않았던 선배들의 투철한 기자정신을 배우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새로운 미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언론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병진 관훈클럽 총무

대한언론인회가 1977년 창립 이후 月刊 ‘大韓言論’ 제300호를 발행하게 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들의 언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의 깊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大韓言論 지면 곳곳에 배어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고민, 현재의 언론상황에 대한 우려 등은 언론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에게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는 기회가 될 터입니다. 원로 선배들의 폭넓은 시평과 이슈에 대한 녹슬지 않은 진단은 또 하나의 ‘현직 언론’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배 언론인들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정리하여 ‘한국언론인물사화 7권’을 발행한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月刊 大韓言論 제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앞으로 제600호, 제1,000호의 발행을 기다리겠습니다.



##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 對北인식 錯視현상 심하다

우리가 대북인식에서 나타내는 착시 현상의 하나는 경제의 눈으로만 북한을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남북한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다. 통계청이 분석한 2009년 남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8,372억달러로 북한의 224억 달러의 37.4배, 1인당 국민총소득도 남한이 1만7,175달러인 반면 북한은 960달러에 불과해 17.9배의 차이를 보였다.

무역 총액도 남한은 6,866억달러였지만 북한은 34억달러에 그쳐 무려 201.9배의 차이를 보였다.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2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수치는 통계당국자의 말처럼 북한이 남한을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격차다.

북한은 이른바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경제난으로 수십만명이 아사했으며 지금도 한-만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의 행렬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60년 넘게 지속된 남북대결에서 경제가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호전성,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자신들이 믿는 사상에 대한 견고성과 통합성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북한의 호전성이 어떤 한지는 북한인론매체들이 쏟아내는 언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역도' '괘거리' '불방망이' 등 듣기에도 섬뜩한 언어로 도배되고 있다. 또 수령의 말 한마디는 신의 말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고, 그들이 믿는 주체사상은 많은 주민들이 절대진리로 맹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주민에게는 그것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

거기다 이른바 선군정치라는 명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남한은 어떤가. 전 쟁이라는 '전' 자만 나와도 몸을 움츠리고 황장엽선생의 말처럼 남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교육이라 할 정도로 이념적 통합성이 결여되고 내부갈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사실은 남한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도준호

•분회이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思想견고성- 내부 통합성 외면  
경제 잣대로만 “곧 망한다” 오인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에 팽배한 물질주의때문이며 숫자의 마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은 곧 망한다는 인식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은 필요하면 도발하고 그 도발에 대해 남한에서는 한동안 시끄럽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다시 북한이 도발하는 행태가 반복되어왔다. 지금도 그렇다. 천안함침몰사건으로 46명의 장병들이 수중고혼이 되고,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민간인이 사망하고 병사들이 전사한 것이 엇그제인데도 벌써 잊혀져 가고 있다. 이사건이후 해병대 지원이 늘어나는 등 상무정신이 약간이나마 살아나고 있지만 북한과 대결을 피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다. 국민들뿐 아니라 정부당국도 마찬가지다. 정부당국자들은 벌써부터

엇그제의 북한 도발을 잊어버리고 판소리하고 있다.

최고통치자까지 나서 “북한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북한군변사태 걱정을 하고 있다. 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당국자들이 앞장서 공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을

장 중요한 것은 오랑개가 감히 대국을 어떻게 넘볼수 있겠는가하는 안이함이 었다.

우리로 남북관계에서 경제력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벗어나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부통합이 우선돼야 한다. 내부통합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노블리제 오블리주 정신의 확립으로 시작돼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술선수법하고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우리의 가치를 앞장서 실현할 때 그것이 확립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군에 갔다오지 않는 사람을 공작에 취임시켜서는 안된다. 아무리 유능하고 박식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지키는 일에 빠진 사람은 비록 작은 공작에라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사회관습으로 확립해야 한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표방한 공정사회실현을 위해 노블리제 오블리주정신을 함양하기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연평포격사건당시 청와대 지하 비상대책회의때 드러난 이상한 풍경은 그것의 정당성을 반감시킬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어떤이유에서건 군에 갔다오지 않는 사람이 백성앞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삼국중 경제력이 가장 약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화랑제도라는 노블리제 오블리주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의 5만대군이 백제의 5천결사대와 황산벌에서 싸울 때 4천4백을 당했지만 전세를 뒤집은 것은 18세에 불과한 화랑 반굴과 관창이 각각 필마단기로 적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써 신라군의 전투의지를 일깨웠기 때문이다. [4]

## 한중광의 스마트 교실 대 성황



한중광의 스마트 교실 첫 강좌가 지난 2월 26일 프레스센터 12층 언론진흥재단 교육센터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중광이사는 이날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용방법을 친절히 안내했다.

2011 시산제 북한산 초대  
3월25일 불광역 집결

입춘도 지나 어느덧 초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본회 산악회는 신묘년 시산제를 3월 25일 금요일 북한산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회원여러분 '건강에는 산행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lt;아 래&gt;

- ◎산행지 = 북한산 능선(구기터널 입구 1시간 소요)
- ◎집합장소 = 2011년 3월25일(금)오전 10시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출구 광장(시간 엄수)
- ◎시산제 =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평생회비 미납 회원은 시산제때 꼭 납부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있습니다.

산행 뒤풀이 장소 = 연신내소재 명동보리밥집(전화 02-352-3392)  
(연신내역 3번 출구 20m 범서쇼핑열)

연락처 = 산악회 총무(010-5443-0063)

大韓言論人會 산악회 회장 안중우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 國益정보 누출 고삐가 없다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즉 국민의 알권리는 태생적으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한다. 국가안보 수호와 알권리 행사는 저마다의 목적은 결국 한군데로 수렴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원칙일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안보와 알권리의 두갈래 기능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만 안보 전담주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한 기밀을 유지하려 하고 보도주체인 언론은 최대다수 국민의 최대관심사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속성이 있다.

이런 업무수행방법과 기능상의 충돌은 지난해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같은 전시 또는 비상상황시 국방부와 언론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두 사건은 전면전은 아니지만 전국민에게 준 안보위협과 충격은 6·25남침전쟁이후 절정에 달했다. 대규모 인명손실, 우리영토에 대한 적군의 직접적인 포격들은 전시에 준하는 보도통제가 필요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긴급하게 돌아가는 비상상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언론은 최대한 전황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경험이 비교적 많았던 선진국들은 안보상 기밀보호및 보도통제와 알권리사이 어느수준에서 타협점이 성립돼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난해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언론도 국방부도 갈광질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평도포격때 군이 보도통제를 하자 언론은 정부

와 군당국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도내용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었다.

군당국이 비상상황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으면 언론도 혼선을 빚게 마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연평도 사격훈련을 처음에는 호국훈련이라고



여영무

- 본회 논설위원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현 뉴스앤피플 대표

권의 압력에 밀려 군이 정보를 과잉 공개하는 경우도 빚어졌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평도에)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 도입등 구체적 전력증강 계획 및 군의 약점을 공개한 게 그런 사례들 중 하

서 언론은 군당국의 엠바고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며 보도윤리다. 부산일보등 일부언론들이 이를 파기함으로써 피랍된 생명들을 위협에 빠뜨린 것은 생명보호 윤리를 위반할뿐 아니라 언론기능의 신뢰마저 실추시킨 행태였다. 생명보호와 알권리중 어느쪽이 우선이나 하는 것은 자명하다. 아무리 언론이라도 무한대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의 명칼럼니스트 제임스 레스턴은 저서 「The Artillery the Press」 20쪽에서 자기는 미국이 고정정찰기인 U-2기를 파키스탄 기지로 부터 소련상공에 띄워 미사일활동과 기지를 촬영,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 1960년 소련이 이정찰기를 격추할때까지 근 1년여 동안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결정이 옳았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남북한은 1953년 휴전했지만 대남전복을 노린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인해 한국은 1950년 6·25남침전쟁때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나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이 이를 실증하고 있지 않은가. 군 당국의 보도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언론인 스스로도 핵과 생화학무기로 무장한 호전광 폭군 김정일과 상시 대결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갖춰야 할 철저한 안보의식과 함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확산이후 기자들이 전문언론인으로서 보도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별적 지위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 安保관련 보도윤리 확립 필요 軍 당국-政府 과잉공개도 문제

했다가 이를 반복하는등 일관성을 잃었다. 대응사격을 한 K-9자주포가 6문이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3문이라고 뒤집는등 언론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현장 영상이 필요했던 모방송은 이라크 전쟁때 바그다드포격사진을 검증없이 연평도포격사진으로 보도함으로써 오보를 내기도 했다.

군당국이 전시 또는 비상상황시 어느 정도 보도통제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군당국이 전략전술과 전황통영상, 무기체계등을 시시콜콜하게 지나치게 과다 홍보함으로써 보호받아야할 기밀들을 스스로 유출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

나다.

지난 1월 24일 정부와 군 당국이 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 마케팅'한데 대해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기밀유출이라고 질타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그때 "합참 내부 상황이 TV에 공개되고, 군사 기밀까지 적나라하게 화면에 비치는 것을 보고 참 걱정스러웠다"며 군기밀 누출을 개탄했다. 군당국의 이런행태는 작전 패탄을 노출할 뿐 아니라 해적들을 자극해 앞으로 잡힐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다.

'아테만 여명작전'인 선원구출특공작전등 비상상황시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요즘 신문·방송은 국익과 사회적 공익을 생각지 않고 지나칠 정도로 까발리고 있다고 보겠다.

지난 60~70년대만 해도 군(軍)관련 기사나 은행 또는 종교관련 기사는 언론사 자체통제나 관련당국의 간접통제에 의해 깊이 있게 밝히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군관련 기사는 기밀누설이나 군사기저하등의 위기가 있다하여 거의 통제되다시피 해온것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은행사건이나 종교인들의 비행사건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많이 자제해 온것으로 안다.

지금은 국방, 은행, 종교관련 기사를 너무나 상세하게 까발리고 있다.

먼저 군관련 기사를 보면 지난번 연평도 피격사건 및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작전 보도에 있어서는 적이 알면 불리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까발린 셈이다.

다시 말하면 국익과 보도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보도가 됐다고 보겠다. 군의 전술·전략까지 상세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적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신문독자나 방송 청취자들은 그런 전술·전략까지는 꼭 알고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아테만 여명작전' 만해도 세부과정 노

## 요즘 신문·방송 너무 까발린다

출비판이 많다. 21명 구출의 빛나는 전과를 인정하더라도 보안사항까지 공개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작전을 할때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군, 아테만여명' 홍보는 지나치다 했는가하면 최근 네티즌 김모씨는 국방부 게시판에 올린글에서 "소말리아 여명작전은 신성한 충격이었다"고 칭찬하면서도 "언론보도를 보자니 걱정이 무척된다. 왜 각종 무기들의 재원이 날

날이 공개되는지. 함정최고 속도가 얼마고 고속단정의 속도는 얼마이고, 헬기는 어떻게 무장했는지 등 그러한 정보들이 적에게 얼마나 유리한 정보인지 모르느냐"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국방부쪽에서 정신없이 지



이선희

- 본회 회우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 한경동우회회원

나치게 공개했기 때문에 언론도 정신없이 따랐다고 보겠으나 어쨌든 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됐다.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 이상우 위원장은 그동안 100회이상 회의를 하고 40회 이상 야전부대를 방문한 결과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핵심내용은 △전쟁계획능력부족 △전략적 발상부족 △정보부족을 우리 군의

약점으로 꼽았다는 보도가 있다.

여기서도 정보의 중요성을 꼽았다. 정말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은 조그마한 정보라도 흘려서는 안된다고 보겠다. 때로는 국방부가 공개한 이 상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관련 이야기를 더하면, 외신에서 미국 부시정부때는 국민 4%를

정보원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다. 이것은 테러정보수집이 주가 된다고 보겠지만 국제테러분자 역시 국가의 적이 아닐수 없다.

또 어느나라에서는 세계 요소요소에 선교사들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안테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친절한 선교사지만 내적으로 자기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것이 즉시 본국에 보고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보는 국력인 것이다.

그리고 은행사건 보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면 우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거래은행의 안전을 머리에 떠올릴것이다.

또 종교단체 보도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주나 성직자 중에서 성희롱을 했다거나 신도구타사건등의 내용이 보도되면 신자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될 것이다.

각 종교단체들의 활동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등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어쨌든 언론은 국가이익이나 사회이익에 손상되는 보도는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4]

# “改憲보다 현안 챙기라” 한목소리 비판

국민들은 유가고와 눈 폭탄, 구제역, 물가양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여당은 개헌타령을 벌이고 있다. 개헌이 수면 위에 다시 뜬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1월23일 당정청 수뇌부 회동에서 “개헌 논의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권력구조와 기후변화, 여성, 남북관계, 사법부 관련 조항을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광범위하게 검토하자고 제의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제언한 바 있다”며 국회의 개헌 논의 가능성을 지적했었다. 2월 1일 신년 방송좌담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해야 부패를 없앨 수 있고, 그래야 청렴하고 공정한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의 개헌은 절차도 전망도 결코 낙관하지 않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헌법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의결(130조1항)을 거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130조2항).

개헌의 주체와 목표가 불명확하여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야당과 여론도 냉소적인 관inde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의 공을 상대방에게 서로 던지는 격이다. 한나라당 개헌 논의 의총은 논란 끝에 당내 특별기구 설치에 합의한 정도다.

1987년 개정된 최장수 헌법은 5년 단

임제로 다른 모든 폐해를 뛰어넘는 독재방지라는 목적을 잘 수행 중이다. 지금의 헌법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못 가는 것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하며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권 공방에 擲力이 없이 당파 싸움을 즐기는 정치인들 탓이다.

검찰이 용기를 내어 전 정권의 부

신문시평



김영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씩 만들자고 소리칠 뿐이다.

정치권이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고급 관료, 행정각부 산하 기관장, 법관, 검찰, 국영기업체장 등 자신들을 포함한 사회 지배계급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기구를 신설한다면 부패근절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근본적인 국가목표를 올바르게 수행할 법적 장치는 개

다’는 따위의 뜬금없는 주장을 내세워 개헌을 정당화하려 안간힘을 썼다”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동원되고 국민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더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개헌론은 확실히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론의 지의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의 시선을 지적한 것이지만 이 신문 주장처럼 개헌의 명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과 국회의 의결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처럼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누르는 삼권분립의 모순은 엄연히 존재한다. 개헌에 진정한 성의를 가졌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믿는 세력들이 헌법의 뭐가 잘못된지 먼저 정교하게 제시해야 하며 그 논의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문화일보는 ‘국회, 개헌 논의 앞서 위헌법률 보완 서두르라’는 1월7일 사설에서 “우리 또한 헌정 미래의

한 전환과제가 개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실효 법률 혹은 일몰(日沒) 입법 법률에 대한 작위 의무를 저버린 채 개헌 논의를 앞세울 일은 의정 차서(議政次序)에 비춰서도 역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개헌은 과제이긴 하지만 있는 법부터 잘 지키라는 지극히 명쾌한 주장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헌의 험로를 걷겠다는 것은 용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이런 개헌론에 사실로 코멘트하지 않는 신문들은 개헌을 아예 코웃음치고 있는 것인가? [\[W\]](#)

## 名分없이 않지만 갈등 소지 커 “국민 공감대부터 얻어야” 지적

패 비리 정치인들을 소추하고 법원이 중형을 때려도 입에 마스크를 한채 휠체어를 타고 검찰과 법원에 출두했던 부패 중죄인들이 다음 정권에서 줄줄이 특사로 풀려나 오늘은 국민의 대변자라고 설치는 풍경이 계속 리플레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왕왕 사회정의의 개념을 짓밟는 것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 다.

부패 척결은 이재오 의원 같은 여야의 실력자들이 제정 필요성을 발설한 공직비리수사처의 신설로 가능하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주당의원들도 정작 노 전 대통령이 그토록 회구했던 공수처는 선거공약으로만 장식해놓고 때가 되면 한마디

헌을 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동아일보가 지난 1월 실시한 한나라당 의원 개헌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120명 중 92%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78%가 “18대 국회에선 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2월9일 사설에서 “권력구조 문제만 해도 정파와 의원마다 의견이 제각각이다. 시대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헌법을 손보자면 얼마나 많은 논란과 갈등을 치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다른 중요한 국정 및 민생 현안들을 제쳐두고 매달려야 할 만큼 개헌이 당장 그렇게 절실한 과제인지도 모르겠다”고 썼다. 한겨레는 지난 1월25일 “이재오 장관은 ‘청렴공정사회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

## 스마트시대와 종이신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생의 신문 기자 지망률이 거의 0%에 가깝다”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 ‘스마트 미디어 환경 도래와 뉴스미디어의 미래’에서 양승목(한국언론학회 회장·서울대학교교수) 주제발표자가 언급한 말이다.

신문과 TV 등 전통적인 뉴스매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특히 신문의 위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10여 년전 IMF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신문의 위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엘리트였지만, 1990년대에 입사한 언론인들이야말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자 PD 등 언론인을 지망하는 대학졸업자의 수는 급증하였다. 1990년대 이른바 ‘언론고시’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언론에 입문했던 기자들이 경력 10~20년차의 중견언론인으로 성장한 지금, 그들은 좌절하고 있다. 신문

사는 더 이상 인기 있는 직장이 아니며 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떠났고 또 떠나려 하고 있다.

그 인기가 영원할 것으로 보였던 지상파 TV의 기자, PD도 이제 미래를 낙관하지 않고 있다. 지금 도대체 언론위기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신뢰도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의 위기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 정점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時 論



천상기

· 본회 회우  
· 전 일간스포츠 편집부국장  
· 경기대 초빙교수

즉 5점 만점 척도로 측정 한 신뢰도가 1994년에 신문 3.97 TV 4.08로 최고에 이르렀다. 그 후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조사에서 신문이 3.11 TV가 3.39로 199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같은 조사에서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는 3.35로 나타나 신문은 인터넷에도 밀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1990년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던 언론계가 10년 만에 이직의 대상이 된 이유가 단지 신뢰도 하락 때문일까...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영

향력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언론계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산업적인 것으로 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위기 때문이다. 이 산업적 위기는 한국언론만의 위기는 아니며, 디지털사회 스마트 시대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 뉴스매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다.

2010년 미국의 뉴스미디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5대 웹사이트는 Yahoo, MSNBC, AOL, CNN 그리고 신문 웹사이트로는 유일하게 New York Times가 포함될 뿐이다.

#퓨(Pew) 리서치에 의하면 매일 찾는 뉴스원으로 40%의 미국인이 인터넷을 선택함으로써 35%인 신문을 눌렀다. TV는 70%로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30세 이하의 경우 59%가 인터넷을 선택했다.

#미국 일간지는 2008년과 2009년에만 적어도 8000명의 기자를 해고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 ‘학자의 고향’ 선비정신 재현 계기 기대

지난 달 방송시평에서 방송이 우리사회를 망치고 있는 이기주의와 갈등과 포퓰리즘의 극복에 제몫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다.

방송이라든 믿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의 호소였고 개인주의와 인기영합주의라는 토양에서 포퓰리즘이란 곰팡이가 갈등이란 사회 궤멸의 독소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

선조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른의 뜻을 물었고 선현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어른이 실종됐고 선현들은 빛을 잃은 현실에서 「학자의 고향」은 하나의 빛으로 다가왔다.

선비정신이 우리사회의 병폐를 치료할 훌륭한 명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KBS 1TV가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20분부터 50분간 방영하는 「학자의 고향」은 기획의도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학자들은 백성들을 위한 학문, 시대정신과 가치의 정립 그리고 후학 양성에 힘쓴 삶을 살았기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그 정신만으로 분명, 귀감이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면서 학자가 나고 지란 ‘고향’으로의 여행을 통해 역사 속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사람과 부대끼며 살았던 모습, 책을 쓰고 시를 읊으며 경륜을 펼치고 낭만을 즐겼던 모습 등을 되살린다. 고향의 풍광을 둘러보고 남겨진 문화재, 작품, 업적 등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남긴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날 이어 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학자의 고향」은 지난 1월 2일 퇴계 이황 편을 시작으로 고산 윤선도, 남명 조식, 삼봉 정도전, 추사 김정희, 그리고 지난 2월 20일 서애 류성룡 편 까지 모두 6명의 학자가 소개됐다. 이 가운데 삼봉 정도전과 추사 김정희는 각 1부와 2부를 방영해서 총 8편이 방송됐다.

8편 가운데 제일 먼저 방영된 퇴계 이황 편과 최근에 방영된 서애 류성룡 편을 중점적으로 모니터 한다.

퇴계 이황 편은 “퇴계, 청량산에 길을 묻다”라는 타이틀로 일관되게 고향 청량산의 자연을 품고 아우르는 퇴계의 학문과 사상과 철학과 삶을 풀어내는 수작이었다.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벼슬보다는 공부와 수양에 뜻을 두었던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과 당당하고 단아한 조선 선비의 기품을 담은 청량산을 함께 내세운다. 그리고 이 흐름이 프로그램 전체를 관류한다.

그러면서 흐르는 계곡물, 산봉우리 하나도 한 걸 같이 뭔가 고고함을 드러내는 듯한 분위



호 천 응

• 본보 편집위원 • 수필가  
• 전KBS1사단장

## KBS 1 일요아침프로 감명 퇴계편 일품...서애편은 미흡

기로 다가오게 한다.

술한 저술과 경륜으로 우리학문사와 정신사의 우뚝한 봉우리가 된 퇴계 이황은 벼슬길에 올라 네 임금을 섬긴 관료였으나 일흔 차례 이상 벼슬을 고사하며 평생 공부하는 학자로 남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런 퇴계 이황의 수양과 학문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청량산에서 무엇을 만나고 싶었던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답으로 금견유산여독서(今見遊山如讀書·이제와 보니 산을 오르는 것은 책 읽는 것과 같다)란 퇴계의 시를 내놓는다.

산을 오르며 학문을 닦고 수양을 쌓은 후에 벼슬길에 올라야 한다는 퇴계에게 자신은 미완의 학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관직을 사양하고 자신을 바르게 수양하고 후학을 지도하는 삶이 값지고 바른 삶이었던 것이다.

겸손하고 배움면서 살겠다는 퇴계의 정신이 바로 오늘의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선비정신이 아닐까?

퇴계 정신의 겸허함은 퇴계 종택을 지키고 있는 16대 종손 이근필 옹의 인터뷰에서도 묻어났다.

“조상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라는 옹의 말을

들으며 죄 지은 조상을 때벌려 자랑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려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퇴계의 도량을 생각나게 하는 에피소드가 웃음을 여미게 한다. 27세에 상처하고 재취로 얻은 관씨 부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부인이 제사상 음식에 손을 댄 일이 있었는데 책망하기에 앞서 왜 그랬냐고 묻

고,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니 직접 꺾아 주면서 가르쳐주고 타일렀다고 한다. 퇴계의 인격에 다시 머리를 숙이게 하는 얘기다. 남의 허물 파헤치기에 눈을 부릅뜨고 사는 사람들, 작은 허물도 용서할 줄 모르는 세태에 이보다 더 귀한 교훈이 있을 까?

한국학 중앙연구원 정순우 교수는 퇴계 학문의 요체는 “성인됨을 추구하는 끝없는 구도의 길이며 사사로운 욕심, 욕망 이런 것을 지워버리고 참다운 진리의 빛을 간직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정권을 잡거나 정권에 기대려는 욕심으로 포퓰리즘이란 망국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유권자의 표가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갈등이란 암세포를 배양하는 이들에게 퇴계의 정신을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다시 정순우 교수의 말이다. “퇴계학이 오늘 날의 자본주의 사회랄까? 산업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철학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퇴계는 “매화분에 물을 주라”는 말을 남기며 숨졌고 “장례를 화려하게 치르지 말고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지난 2월 20일에 방영된 「서애 류성룡, 그는 어떻게 임진왜란을 극복했나?」는 임진왜란 당시 군사업무를 총괄하는 도체찰사(都體察使)를 맡아 이순신 권율 등 명장을 등용하여 조선을 구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으며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처신한 정치가이자 학자인 서애 류성룡의 일대기를 그의 고향인 경북 의성과 안동의 유적지와 유물 등을 찾아보며 그려냈다.

명재상 류성룡의 삶과 지혜를 통해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

영상부터 좀 단조롭고 모자란다는 인상을 받게 했으며 단순히 반복되는 내레이션과 특이 할 게 없는 내용 등이 프로그램 전체를 재미없게 만들었다.

동인과 서인의 치열한 논쟁에서 서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미흡했다.

세자 책봉을 둘러싼 문제에서 서애의 입장과 이순신 장군을 천거한 과정 등에서도 후세가 본받아야 할 가치로서 서애의 역할이 부각되지 못했다.

세자 책봉에서는 왕의 뜻을 따랐을 뿐이고 이순신 장군은 어려서 부터의 인연과 의리는 강조했으나 이순신의 어떤 점을 보고 천거했다는 설명 등이 약했다.

전체적으로 서애 류성룡의 내면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가 살아 있다면 오늘의 우리 후손에게 무슨 가르침을 줄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그에게서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제시가 없었거나 약한 프로그램이었던 같다.

물론 제작의 대상인 퇴계와 서애의 차이가 프로그램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측면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방송 보다는 앞으로 제작이 더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우리사회의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정신부터 바로 서야 한다. 선비정신이 우리들의 원로로 스승으로 양심적인 행동지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노력이 값질 것이다. 「선비의 고향」에 거는 기대가 크다. [7]

### 6면에서 이어집니다.

#신문의 구독률이 마지막으로 상승한 것은 1984년으로 그 해에 6330만부가 발행됐다. 2009년 신문의 발행부수는 4300만부로 감소했다.

#미국 신문의 광고수입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0년으로 490억 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280억 달러로 줄었다.

특히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우 신문과 같은 전통매체의 위기현상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광고비 감소에 따라 신문의 매출액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9

년 현재 조선, 중앙, 동아 세 신문의 총 매출액이 거대 포털 NHN 한 회사의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상파 TV도 매출액 증가가 눈에 띄게 둔화되어 방송 3사의 매출액이 최근 수년간 2조5천억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독자들이 떠나고 광고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신문의 선택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실적으로 종이신문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니, 신문사들이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자구책은 웹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것이다.

인쇄된 종이 없이 태블릿PC에서 신문처럼 편집된 형태로 구독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온라인 일간지가 미국에서 창간됐다.

‘미디어 황제’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아이패드(iPad) 전용 온라인 신문인 ‘더 데일리(The Daily)’ 창간 행사를 가졌다. 세계 최초의 태블릿PC용 유료신문인 더 데일리 창간은 온라인 뉴스 유료화의 시한대로 평가 받는다. 더 데일리는 매일 100페이지 분량의 기사를 마치 종이신문을 보듯 편집한 형태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아이패드 독자에게 배달한다. 100~150여명의 기자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더 데일리 창간은 머독의 세 번째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언론매체를 인수하며 오프라인 언론영역을 확장한 것이 첫 번째라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더 타임스 등 기존매체의 온라인 뉴스를 유료화한 것이 두 번째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종이 없이 순수 온라인 신문을 유료로 창간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번 도전이 성공할 경우, 전 세계 1만2000개의 일간지(무가지 제외)가 매일 5억1600만부씩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뉴스 시장은 일대 변혁이 뒤따를 전망이다. [8]

## 회우들이 펴낸 新刊

## 안광식 회우 '이화사랑 반세기'

안광식 회우(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작년에 팔순을 맞은 5명의 이화여대 명예교수들과 함께 「팔순 양띠 교수들 이화사랑 반세기」라는 이색적인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저자들(김영일, 김영호, 김재은, 서광선, 안광식)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화대학에서 겪었던 이채로운 이야기들을 활기차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감미로운 추억의 회고록이다. 아름다운 이화 캠퍼스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보람과 기쁨, 격동을 거치면서 겪었던 고뇌와 항거, 이화와 관련된 숨은 이야기들을 담았다.

저자들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부터 이화의 강단에서 가르쳐 왔고, 1996년에 함께 정년퇴임을 하고 이미 15년이 지났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줄곧 이화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화에 사랑을 바쳐 왔다고 이야기한다. 다섯 명의 팔순 양띠 교수들은 이화의 후학들이 모르던 이야기, 잊었던 이야기, 그리고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서술함으로써 이 책은 이화의 역사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표현은 다



르지만 각자가 하나같이 “나는 이화대학에서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화여대와 더불어 지내온 50여년의 세월을 감사하고 있다. 이 책의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우스운 이야기들과 그 밖의 담론들은 이화여대 특유의 문화를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성사와 대학사,

그리고 사회사의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안광식 회우는 1960년대에 언론학 교육의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언론학을 가르쳐 왔고, 어떻게 언론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는가를 기술했으며, 특히 1970년대의 유신시절에 「이대학보」주간지를 맡으면서 겪었던 혹독한 언론탄압의 여러 사례들을 생생하게 폭로해 놓았다. 그는 또한 정년퇴임 후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본회 회원으로서 2002~2004년에 본회가 주관한 ‘한국의 언론자유 평가’ 프로젝트에서 편찬회의 공동의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술회했다. [4]

(이화여대 출판부 발행 · 366 면)

## 황원갑 회우 '인물로 읽는 삼국유사'

본보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연재하고 있는 황원갑 회우(소설가·역사연구가)가 ‘인물로 읽는 삼국유사’를 펴냈다.

민족 사학의 정수요, 서민문학의 보물창고인 귀중한 문화유산 ‘삼국유사’를 2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읽고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이 책은 ‘삼국유사’의 수많은 설화중 50편을 발췌하여 수록했다.

주제별로 분류된 본 책과는 달리 시대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인물과 설화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또한 각 일화마다 현 세태를 반영하여 흥미로운 해설까지 덧붙이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몇몇 대목은 소설의 구성과 대화체로 서술했다.

이 책은 또한 저자인 일연선사가 자료의 미비나 착오로 잘못 서술한 몇 가지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신라 충신으로 알려진 김제상은 원래 성은 박씨이므로 박제상이 옳으며, 화랑 세속 5계를



만든 원광법사 역시 여러 사료에 근거하여 박씨나 설씨가 아닌 김씨라고 바로잡고 있다. 또한 「서동요」로 유명한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창건했는가의 문제도 흥미롭게 살펴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를 좀 더 깊고 널리 이해하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

기 바란다. 아울러 국난에 버금가는 난국인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 넘기는 지혜를 얻기 바란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황원갑 회우는 1945년 강원도 평창에서 출생했고, 춘천고와 서라벌예대 문창과를 졸업했다.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1983년 신동아 복간기념 논픽션에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한국일보 월간 편집국 기자와 서울경제 특집부 기자, 문화레저 부장을 지냈으며, 2002년부터 소설 창작과 역사서 및 역사칼럼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한국문인협회, 대한언론인회, 단국학회, 고조선학회, 고구려발해학회 회원이다. [4]

(청아 출판사 刊 · 399면)

흔히 사람들은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고 한다. 그 만큼 담배는 습관성이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흡연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9.6%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불명예스러운 최고의 자리다. OECD헬스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음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나라는 이웃 일본으로 26%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가 25%를 기록하면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23%를 기록해 아시아 3개국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 서울광장 담배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이달(3월)부터 흡연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그리고 청계천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숲’과 ‘북서울 꿈의숲’ 등 주요 공원 23곳이 금연구역으로 선포된다. 또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점차 확대 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들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관악구청도 오는 7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을 고발하면 4만원의 포상금까지 준다고 한다. 이

## 담배 못끊는 한국 기초질서 아쉽다

래저래 ‘애연가’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됐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몇 해 전부터 ‘금연빌딩’을 지정해 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공공기관에서도 ‘금연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따라서 금연운동은 날로 확산되는 추세다. 요즘 광화문이나 여의도 같은 ‘대형빌딩’ 앞을 지나가다보면 많은 회사원들이 빌딩 앞에 나와 담배 피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언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레스센터빌딩’ 1층 옆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운다. 이는 빌딩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금연빌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침을 먹고



김 휴 선

- 본회 회우
- 전 MBC보도국 부국장
- 현 KOBACO공익광고협의회 위원

출근하면서부터 담배를 한 대 피워 무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다. 그리고는 버스정류장까지 또는 지하철 입구까지 가는 동안 담배를 계속 피운다. 이로 인해 등교하는 학생은 물론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간접흡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도쿄 시부야 역 앞을 지나다보면 수십 명이 모여 마치 불이 난 듯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담배를 많이 피우기로 소문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꼴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일본은 동네 곳곳에 담배 자판기가 널려있고, 식당이든 거리

든 흡연자들로 넘쳐난다. 또 거리 어디를 가도 흡연자를 위한 재떨이가 설치돼 있다.

그러던 일본이 최근에 담뱃값을 인상하면서부터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종전에 200~250엔 하던 담뱃값을 400~470엔으로 인상하자 소비자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 한번하지 못하고 용돈을 줄이거나 금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쿄 시내에는 지금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예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흡연자들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물론 ‘보행중 흡연금지’, ‘노상 흡연금지’ 등과 같은 조례가 확산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하지만 담뱃값을 인상하고부터는 흡연자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 우리나라도 담뱃값 인상 주장 나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담뱃값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 클리닉 의사이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인 서흥관 교수는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은 물론 ‘담배 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그리고 ‘담배 규제 기본협약 이행’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지난 달 한 세미나에서 “2001년에 담배가격을 300원 인상할 때는 흡연율이 9.4%줄어”든 예를 들었다. 또 “2004년에도 500원 인상할 때는 5.5%가 감소했다”면서 “담배가격과 흡연율은 반비례하고 있다”고 말했다.

9면으로 이어집니다.

# 이승만 功過 재조명 돼야 한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위원회를 만들어 기념 행사를 지원했으며, 미국언론의 레이건 재평가와 추모열기도 뜨거웠다.

레이건은 레이거노믹스를 밀어붙여 경제를 회복시키고 냉전도 종식시켰으나 재임중 그의 지지율은 평범한 수준이었다.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도 물렸었다. 레이건이 금년 2월6일 탄생100주년에 재평가된 것은 그의 강한 리더십을 추모하며 미국의 영광 회복을 열망하는 사회 분위기가 복합된 것이다.

미국의 거국적인 레이건 탄생100주년 기념행사에 비교해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탄생 136주년 기념 사업은 빈약하다.

2차 대전후 출병한 중국 대만 베트남 수도에는 건국 공로자인 모택동 장개석 호지명 기념관과 동상들이 있으나 서울에는 건국대통령 기념관과 동상이 안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하고 선진국 진입의 기초를 다진 건국대통령 시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대한민국 현대사 교육까지 왜곡되고 있다.

지나해 운동권 출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승만 비판 선두에 섰던 신문들이 칼럼을 통해 이승만 기념관과 동상 건립을 제기했고 관훈클럽은 4·19 당시 언론인의 증언을 통해, 이승만을 재조명했다. 이승만 탄생136주년 기념행사를 올해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기로 했으며 우남 기념관과 동상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 한국인 동문회가 우남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 우남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남이 세운 인하대와 하와이 한인 기독교교회도 우남 추모 기념물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이승만시대사 정리 작업은 아직도 걸림돌이 많다. 정치학 경제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자들의 공동 노력

으로 이승만 재평가 작업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승만을 폄훼하는 좌경세력의 종북자학사관이 중고교 역사교육의 주류로 엄존해 이승만은 전후 세대에겐 ‘건국의 아버지’, ‘분단의 원흉’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로 비치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정권과 일부 언론에 의해 이

## 時 論



박 석 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 左派정권 ‘버려야 할 歷史’로 폄하 主權국가의 기틀세운 공적 평가를

승만 건국 대통령 시대는 버려야할 역사로 폄하되기도 했으나 최근 한국 미국 소련의 비밀 문서 공개와 당시 주역들의 증언,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로 왜곡되었던 일부 사실이 바로 잡히고 있다. 스탈린이 45년 9월20일 북한정권 수립을 지시한후 김일성은 소련의 지령대로 45년 11월 북조선임시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북한에서 남한보다 먼저 소련 위성국가 수립이 진행되었음이 구소련 문서 공개로 확인됐으나 일부현대사교과서는 이승만의 정음발언으로 분단이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승만의 정음 발언은 북한에서 진행중인 소련 위성국가 설립을 막자는 호소문이었다.

이승만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도 여의케 되지 않았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라며 북한에 위성국가를 설립하려는 소련을 물러나

주 친일세력 등 기존세력과도 결별해 험난한 정치를 선택했다. 건국 후 이승만은 좌파·지주·친일 세력·김일성에 동조하는 임정 일부 세력·김규식 등 미국 추종 세력의 공적이 되었다. 6·25전쟁중 발을 빼려고 하는 미국의 전후 처리에 강하게 반발한 이승만 제거를 한국 정치가와 일부군장성까지 미국 대사관저에서 협의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승만은 58년 원자탄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만들자고 내각에 지시 했으며 1960년 초 국무회의에서는 “내가 미국의 trap(덫)에 걸린 것 같다”고 걱정하며 “일본의 이간책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며 백선엽장군을 미국에 보내 미국 친구들에게 한미우호 관계를 알려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건국에서 6·25전후 북구까지 대한민국은 군사, 경제 면에서 미국과 유엔의 원조에 매달리는 속국(clientstate)상태였지만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로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주권국가로 대접하도록

했다. 이승만은 애국심, 지식, 역사적 형안, 투지, 도덕성 등이 당대 어느 정치가보다 뛰어난 인물이었다. 1942년부터 이승만 자문 역할을 했던 올리버 위스콘신대 교수는 이 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여수·순천 반란사건과 같은 국가 위기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 안보를 확고히 했다. ②6·25전쟁 중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확실하게 했고 강력한 군대를 육성했다. ③공산주의 경력 있는 조봉암을 농림장관으로 기용, 지주 출신 의원들로 가득 찬 국회에서 농지법을 통과시켜 농지개혁을 완수하고, 농협을 만들어 농민들을 전통적인 수탈에서 해방시켰다. ④건국 초 어려운 재정에도 교육

비를 우선 배정하여 국민 교육 수준을 높이고 해외 유학을 장려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력풀을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60년대 경제 발전의 기초도 다졌다. 6·25 국난을 한국 근대화의 전기로 삼아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경제개발계획 수립, 전후 복구와 수출을 위한 대기업 육성, 산업화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박정희를 도운 관료까지 키웠다.

이승만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식목과 사방공사 사업을 논의했으며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한 한국사 체계화를 역사학자들과 협의도 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은 미국에 유리안지 되는 비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나 위대한 업적까지 땅에 묻힌 것은 아니다. 좌파정권이 흐려놓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한민국사 체계화의 기본틀을 제시할 이승만시대 정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건국대통령을 재평가하는 학제적 연구로 흥미한 대한민국사가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건국 대통령 기념관에는 우남의 공과가 모두 모아져 후세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

## 8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인상 역시 8,500원 선까지 올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 교수는 또 “전 세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도록 우리나라도 더욱 강력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금연운동을 벌여오고 있고, 최근에는 대기업과 병원이 흡연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 잘 지켜지지 않는 ‘기초질서’

우리는 일찍이 시민의식이 부족함을 여기저기서 보아왔다. 지난해 8월, G20 주요 선진국 회의를 앞두고 ‘기초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거리에서 함부로 껌을

버리거나 침을 뱉을 경우, 과태료 3만원에서 5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서울시내 주요공원이나 등산로에서는 금연은 물론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닐 때에는 5만원의 벌금을, 그리고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7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내 번화가나 지하철 환승역을 가다보면 오가는 사람들이 서로 뒤엎겨 ‘우측 보행’인지 ‘좌측 보행’인지 분간 할 수가 없다. ‘우측 보행’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경찰청이 3월말부터 전국 120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차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데 이도 잘 지켜지지 두고 볼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껏 몇몇 법 제도를 살

펴보면서 ‘법’ 다르고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서울시의 이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걱정이 앞선다.

### 흡연으로 일 년에 5만 명 사망

국립암센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과도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 년에 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의 7배나 된다고 하니 엄청나게 큰 숫자다. 또 그뿐 아니다. 가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집의 어린이는 피우지 않는 집에 비해 뇌수막염에 걸릴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리엔장 교수는 담배 연기에 밴 옷이나 카펫 등과 접촉하는 ‘3차 흡연’자도 자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 하고 있다. 그러니 담배는 국립암센터 박재갑 전 원장의 말처럼 독극물이나 마찬가지다. 또 흡연은 모든 암

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담배는 이래저래 이 기회에 끊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가 이번에 법을 제정해 벌금을 물린다고는 하지만 담배 피우는 것을 누가 따라 다니면서 감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연은 흡연자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수준은 그렇지 못하다. 흡연자는 보통 마음으로는 끊기가 어렵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단속 인력이 있었지만 이는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금연은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 맡길 수밖에 없다. ‘남이 인분다고 피우고, 남이 분다고 안 피우는 것’은 문화인의 수치다. 법을 지키는 일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흡연’은 나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 옆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박]

# “글쓰기는 평생직업”... ‘老人의 담론’담론

##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2〉

회우초대석

이 형

인터뷰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노인에 관한 12개의 章(가제)’ 단행본을 탈고하여 출판사에 넘겼어요. 최근에는 자유기업원에서 내는 월간 ‘국회 정보마당’에 국회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2대 국회 10회 연재에 이어 3대 국회를 쓰고 있지요.”

-출간 될 단행본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요?

“노인과 돈, 노인의 성(性), 추억과 고독, 밋, 병과 죽음 종교 등 우리시대 노인들의 담론을 담았습니다.” 개의 꼬리와 사람의 수명이 같다고 능사가 아니듯 노인들도 삶의 질을 높여 ‘황혼의 빛’으로 방점을 찍자는 의도를 담았다고 소개한다.

지난 2월 15일 프레스센터 1층 커피숍에서 본회 이형 논설위원을 만났다. 근황을 묻자 “요즘도 글을 쓰며 바쁘게 지낸다”는 것. “어떤 일이든 몰두하다 보면 나이도 비껴갈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형 회우는 올해 여든이란 연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 격랑의 세월을 헤쳐온 老 記者 스타일이라기보다 ‘범생이’로 통하는 모범학생이나 꽃꽂한 선비풍의 학자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는 대한언론인회가 1988년 제정한 제1회 ‘대한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당시 신문, 통신, 방송사에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막판까지 4명이 경합을 벌였으나 심사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정됐다. 그 해 이 회우는 한국일보에 53편의 기명 평론과 ‘地平線’을 쓰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동안 많은 저서를 남겼다. ‘조병옥과 이기붕-제1공화국정치사의 재조명’, ‘장면 정권과 민주당’, ‘3대 국회’는 정치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政街의 비화를 담고 있어 현대사 연구서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신은 중산층인가-한국경제의 신화와 실상’, ‘한국경제의 이해와 선택’, 시사평론 ‘자유를 위한 저항과 갈망’, 부부 수필집 ‘좋은 때나 꽃을 때나’ 등을 출간했다. 그 가운데 ‘한국경제의 신화와 실상’(1980년 삼성출판사)은 경제서적으로는 드물게 1만 4,000여권이 팔렸을 정도로 주목받았다고 한다.

-집필은 주로 언제 하시는지요?

“야행성이라 주로 밤에 씁니다. 한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며 집필하느라 한쪽 시력을 잃기도 했어요. 그 버릇 탓으로 요즘도 대개 자정 넘어 잠자리에 들고 늦잠을 자는 편입니다. 어깨를 다치기 전에는 30년 넘게 매주 일요일에 산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잠시 쉬고 있어요. 낮엔 헬스클럽에서 가벼운 운동을 한 뒤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클래식을 들으며 여백의 시간을 갖지요. 이제 추위가 풀리면 다시 산행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 회우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지금까지 쓰다말다 하면서 이어오고 있다. 예전에는 시나 수상 등 길게 쓰기도 했지만 요즘은 일상 등을 기록형식으로 남긴다는 것. 클래식을 좋아해서 LP판 수집에도 취미를 가졌다고 한다.

-원고는 컴퓨터로 쓰시는지요?

“200자 원고지에 육필로 쓴 뒤 컴퓨

터로 옮기면서 추고를 합니다. 몇 십년 동안 길들여진 버릇이라서 컴퓨터가 편리한 줄은 알지만 여전히 직접 원고지에 손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한때 밋을 부리느라 千覽宇선생을 흥내 내서 붓으로 원고를 쓰기도 했어요.” 20대 후반 李馨 기자는 ‘주간 희망’지에 정치인 프로필과 사회 만평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를 기고하고 있었는데 그 때에 지금의 부인 김명주여사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한다.

이형 회우의 언론생활은 격랑의 현대사만큼 반전을 거듭했다. 언론계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53년 3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을 다니던 어수선한 시절이다. 연합신문·동양통신 수습기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 1400여명 응시자 가운데 수석으로 합격했다. 6·25전쟁 후 첫 공채다. 대학교 졸업 이상이 응시자격이었으나 그것을 따지지 않고 채용되었다. 서울대 문리대 3학년 때였다.

환도 전 선발대로 서울 본사로 온 뒤 동대문과 청계천변 시장 풍경을 스케치한 르포기사 ‘여기가 서울이다’를 연재했다. 부산 팀 모두 서울로 돌아 온 뒤 국회출입을 배정 받는다. 2대 국회 때다. 수습기자 딱지를 떼 뒤 첫 오보를 냈다고 한다.

-오보 내용은?

“자유당의 ‘族靑派(민족청년단)’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족청과의 실력자 梁又正 의원(연합신문 사장이기도 했다) 구속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가결을 부결로 송고한 것이지요.” 국회 단독 출입으로 본회의장을 벗어나 다른 기사를 보내고 온 사이 부결된 것은 ‘구속동의안의 표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었는데 그것을 구속동의안의 부결로 잘못알고 ‘양의원 구속 동의안 부결’이라는 기사를 송고했다는 것. 얼마후 구속안이 가결되어 부결을 가결로 정정하는 기사를 보냈지만 이미 석간 인쇄를 시작했던 신문사는 발각 뒤집어지고 인쇄된 신문은 폐기처분됐다. 그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조선일보로 옮긴 것은 오보 여파인가요?

“아닙니다. 그 해 11월 조선일보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정치부로 옮겨요. 당시 張基榮씨가 사장이었고 새로운 신문 창간을 준비하면서 함께 일하는 권유를 받았어요. 조선일보사에서 그냥 남아 있으라고 당부하여 곤혹스러웠다”고 말한다. 입장이 난처해진 그는 서울신문으로 잠시 옮겼다. 1년 남짓 사이 연합신문에서 조선일보, 서



“글 쓰기는 평생 직업”이라고 강조하는 이형 원로 회우.

## 꽃꽂한 선비풍... 대한언론인회 제1회언론 53년 記者 첫발... 국회 출입 현대政治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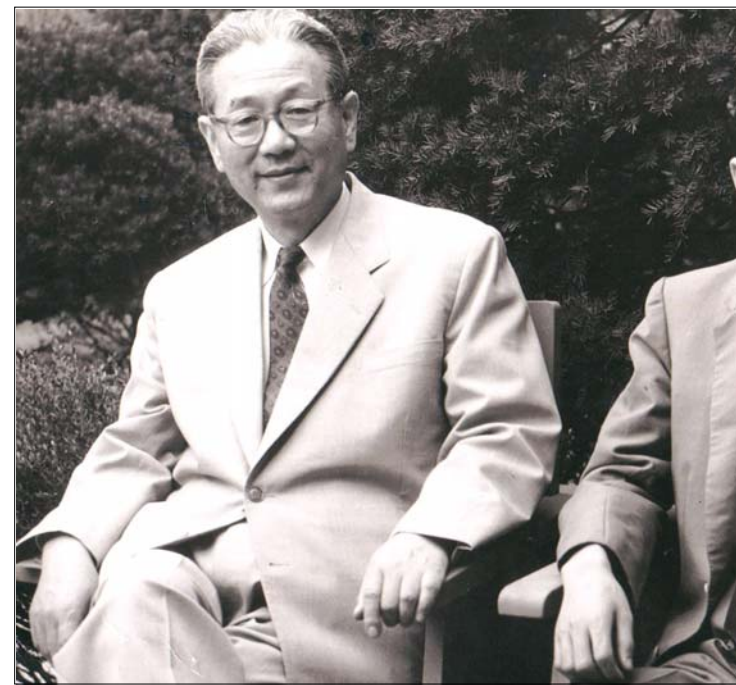
울신문을 거쳐 1954년 6월 초에 창간된 한국일보에 닷을 내렸다. 사회부 기자로 법조, 서울시청 등을 1년 여 출입하다 정치부로 옮겨 7년 동안 정치부 기자로 격랑의 현장을 취재했다. 4·19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 민주당 정부 출범, 5·16군사혁명과 신군부 출현 등 정치사의 소용돌이에 그가 있었다.

-그 시절 잊히지 않는 사건은?

“1956년 9월 28일 張勉부통령이 서울 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피격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해 12월 31일자로 ‘(장 부통령 피격)배후에 경찰수뇌’ 보도로 최종기, 이원홍 기자와 데스크를 본 나, 편집담당 조기호 기자가 지명 수배를 당했어요.” 장기영 사장은 수배되었던 기자들에게 誤報賞이라며 하룻밤 통음하게 충분한 1만원씩을 주었다니 질책 대신 보너스를 준 ‘남민의 시절’이다.

-요즘도 매달 24일에 만나는 ‘2·4모임’은 무엇입니까?

“1958년 여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려하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8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서 무기



1956년 장면 부통령과 이형 기자.

한 농성에 들어갔어요. 12월 24일 국회에서 警衛權을 발동하여 야당 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의회정치의 종말을 보는 듯

# ‘참론’답은 저서 곧 출간

## 이형

- 연합신문, 조선일보 기자
- 한국일보 논설위원
- 한국일보 편집국장 대리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조하는 이형 원로 회우.

## 회 제1회언론인상 수상 현대政治史 현장 취재



1956년 장면 부통령과 이형 기자.

한 비통한 심정이었지요. ‘2·4 파동’을 겪었던 국회출입기자 몇 명이 요즘도 매달 24일에 만납니다.” 모임의 경비는 더치페이. 정계원로들이 식사비를 내려

고 하면 참석은 하되 경비는 사절이라는 것이 불문을. “지난해 까지 만났던 金明九 회우가 지난 1월 타계하는 등 회원들이 해마다 줄어 무상을 느낀다”며 씁쓸해 한다. 타계한 회원은 최근의 김명구씨를 포함해서 송원형 조세형 김인호 정인량 정용현 이운수씨 등 7명이며 현재 박관상 이용희 권오기 씨 등이 와병중으로 출석을 못하고 있어 이제 조용중 김준하 이형 3명이 남았다.

복직-해직-재 복직...부침 거듭  
-주일 특파원 6개월을 거쳐 10년 동안 뉴욕에 장기 체류한 이유는?

“1961년 군사혁명 후 舊惡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출입을 규제 당했습니다. 구 정치인들의 연락담당자라며 어거지로 낙인찍은 거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6개월 가량 일본에 체류하다 1962년부터 10년 동안 미국에 머물렀지요.”

-주미 특파원이었나요?

“아닙니다. 뉴욕주재 통신원이란 직함을 유지하며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뒤 이 회우는 장기영 사장에게 귀국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고, “걱정말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귀국한 뒤 편집국 근무를 희망했으나 논설위원실 발령을 받았다. 1978년 편집국장 대리로 승진한 뒤 ‘대리 꼬리’가 잘리기를 기대했으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국장이나 주필 등 책임 있는 자리는 주지 말라는 ‘요 주의’ 인물이었음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한다.

-1980년 8월 해직기자가 된 이유는?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동조 및 자유실천문인협회 101인 선언문에 서명했다는 것이죠. 나는 문인도 아니고 서명도 안 했지만 ‘미운털’이 박힌 반체제기자 A급으로 분류되었어요.” 해직을 당하기 열흘 전쯤 신 군부에서 “소사장(전두환)의 정치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거부한 것도 눈엣가시였다”고 회고한다.

-해직 후 생활은?

“동양기전 대표이사를 맡았어요. 해직기자가 된지 5년만인 1985년 4월 논설위원으로 복직된 것은 행운이었고, 주변에선 ‘2전3기’라고 격려해주었어요.”

이형 회우는 피난시절 기자로 출발하여 1993년까지 기복 많았던 기자생활을 마감했다. 기복이 심했던 만큼 경험이 풍부해졌고 그것이 팔순에도 왕성하게 집필하는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원고지 앞에 앉는다. 퇴임 후에는 고향 통영에서 발행하던 한산신문 회장과 (주)한려개발 회장을 맡기도 했다.

주랑은 반주를 곁들일 정도로 좋아하고 모임 때는 소주 1병이 적당하다는 것. 담배는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웠으나 끊은 지 20년 됐다고 한다.

부인 金明珠(79)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필자]

## 隨想

## 老人과 ‘젖은 낙엽’



지용우

- 본회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우아하게 늙는 것은 모든 노인들이 바라는 이상론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노인 4품’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들 에겐 십중팔구 늙고막에 바라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가 그것인데 만일 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 받은 노인이다.

여기에 노욕(老慾)이란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된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노년이 되면 모든 욕심의 유혹 부터 뿌리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말 속에는 노욕은 곧 노후와 직결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명예욕, 돈 욕심, 성욕 등 모든 욕망과 거리를 멀리 하고 우아하게 말년을 보내는 것이 어르신으로 존경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만 꿈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충고가 있다. 기독교계에서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존 맥아더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단지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늙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말년에 꿈마저 버린 사람은 대신 ‘마음의 주름살’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다.

노인은 결코 많은 돈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많은 돈은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다툼을 벌여 형제간 우의에 금이 가는 등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무수히 보아왔다. 그렇다고 무일푼인 늙은이가 되는 것도 비극이다. 무일푼 신세가 되면 우선 가족으로 부터도 푸대접을 받게 마련이다. 체면유지와 몸보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쳐둬야 한다.

일본의 주부들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집안에 죽치고 들어앉은 늙은 남편을 ‘오치 누레바(濡れた落ち葉)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로는 ‘젖은 낙엽’이라는 뜻이다. 마른 낙엽은 산들바람에도 잘 날아가지만 젖은 낙엽은 한 번 눌러붙으면 빗자루로 쓸어도 땅바닥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사실 ‘오치 누레바’는 너무도 인격모욕적인 말이다. (집안에서)쓸어내고 싶어도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 부담스런 존재라는 뜻이다.

노령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우리나라에도 젖은 낙엽 신세의 노인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한국이 이 만큼 잘 살게 되는데 절대적 공로자들인 오늘의 노인들은 결코 ‘오치 누레바’ 취급을 당해서도 안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노인들은 계속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노인들

에 대한 복지예산을 나라가 더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한다. 또한 고령에도 건강한 실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다양화해야 한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할 일이 없어 시내를 배회하거나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외로움을 씹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웰빙’(wellbeing·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란 말을 곧잘 들먹인다. 오늘의 노인들에게는 ‘웰빙’ 이전에 ‘웰 에이징’(well-aging·곱게 나이 먹어 가는 것·곱게 늙는 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다. 속담에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고 했다. 노인들도 나라가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노인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엄숙한 충고라면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체념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쓸모 없는 늙은이야” 따위의 체념 속에 스스로를 매장하는 노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욕과 용기가 중요한 것이다. 독일이 낳은 위대한 문호 괴테는 74세 때 19세 소녀인 울리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눠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팔삭둥이 조산아로 태어난 윈스턴 처칠도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으로부터 저능아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해서 일약 대영제국의 수상이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총 지휘한 위대한 정치지도자로 추앙을 받았다.

인생의 빛깔은 아침보다 황혼이 더욱 찬란한 법이다. 그러니 한국의 노인들이여, 늙었다고 절대로 기 죽지 말고 체념하지도 말지아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꿈까지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니까 말이다. [필자]

## 회우저술 문고 보내주세요

대한언론인회는 아래와 같이 회우 여러분의 역저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회우 여러분의 값진 족적을 높이 선양하고 후진 언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기 위해 기획된 회원저술문고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기증해 주실 책 -회우가 저술한 전문서적, 논문집, 시집, 수필집, 사진집
- 기증방법 - 본회 사무실로 직접전달 또는 우송
- 기간 -연중무휴(단 공휴일 제외)
- 관리방법-서기에 진열 영구 보존(필요시 열람, 참고 자료로 활용)

大韓言論人會

## 老後설계와 재테크 ④

### 주택 양도세 조항 잘 살펴라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소득세다. 골프회원권, 리조트나 콘도미니엄 이용권 등을 팔 때도 적용되고 매매뿐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는 교환이나 현물출자 대물변제시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주식이 매각될 때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취득가액과 거래금액 등을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면 된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 9억원 미만이면 전액 비과세로 신고의무가 없지만, 9억원 이상일 경우는 초과비율 만큼만 과세한다.

#### 주택, 1세대 개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상가보다 주택이 크면 주택으로 간주하고 상가가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분계산한다. 부수된 토지는 도시는 5배 이내, 도시 밖은 10배 이내로 한정된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1채로 간주되고,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된 각각을 1채로 본다. 주택으로 보지않는 별장, 폐가,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설업의 재고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아닌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없는 경우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자도 1년내 팔면 양도세 50% (주민세 별도 적용)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실수요자로 보고 6~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취득한지 2년 이내 거래하거나 다주택 부동산은 40%에서 최고 60%로 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1년 미만 1세대 1주택자 양도주택이나 1세대 2주택자 양도주택, 1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은 50% 과세된다.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수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와 비업무용 토지는 60%가 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70%가 과세된다.

다주택자,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종과 완화조치 2012년 말까지 연장

#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세종과 완화조치(기본세율 6~35%)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2012년 말까지 연장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따라서 2012년 말까지 주택이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처분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세 종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자가 양도하는 수도권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자가 양도하는 수도권 소재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 해외거주자가 양도세 안내고 출국하면 큰 낭패

-본인은 1세대 1주택이지만 만약, 친지(부모, 처남이 타주소지에 주택을



홍용수

- 분회 회장
-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 전 한양대 겸임 교수
- NSI자산관리 연구회 회장

소유)가 동거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으면 세법상 2주택자로서 먼저 매도한 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이 잔금을 받기전에 먼저 친지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아버지의 주민등록상에 30세 이상의 자녀가 같이 있다가 자녀 명의

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아버지 주택의 매각 잔금을 받기전에 자녀가 다른곳에 독립세대(실제 생계를 달리)로 주민등록을 옮겨간다면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자기 재산을 매각할 때 국내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매도자가 양도세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3의2)매도인이 인감증명서 발행시 양도소득세 완납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 혹시 외국 거주자가 양도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리면 큰 낭패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소재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면 지역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주택을 1개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

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 -해외 이주시 3년 보유 예외 규정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보유자로서 1년 이상 계속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등이다.

#### -일시적 2주택 예외규정

대체취득과정에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는 2년, 직계존속의 동거분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5년,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5년까지 예외로 인정한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시는 1세대 1주택,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시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한다.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채가 된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또는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 양도세 허위 신고는 55%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 따라서 등기 신청인(매도자, 매수자)이 허위 기재시 취득세의 1~3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 중개인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가 된다. 또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소득세는 허위금액의 4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0% 수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에 따른 5% 세액감면 배제 등 합계 55%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 열린음악회 방청 즐거운 한때

### 본회 회우 100여명 KBS 전학

대한언론인회 회원 100여명은 2월 22일 오후 4시 KBS방송국을 견학하고 '열린음악회'를 방청하는 등 뜻 깊은 저녁 한때를 만끽했다. 본회 김은구 상담역(전 KBS경영본부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진중철 KBS 시청자권익보호국장의 안내로 먼저 KBS 국제회의실에서 김인규 KBS사장(본회 회우)의 간단한 브리핑에 이어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전 과정을 직접 견학하고 열린음악회를 방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인규 사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언론

인회의 원로 언론인들이 KBS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KBS 수신표인상의 불가피성을 간단히 설명했다. 세트실과 생방송 스튜디오, 소품실을 두루 볼 수 있는 견학 코스는 체험학습장으로도 인기를 끌었고 '일기에 보', '6시 내고향', '뉴스데스크' 스튜디오에선 사진촬영도 자유로웠다.

회원들은 KBS가 마련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열린음악회 녹화현장인 KBS 홀로 옮겨 1시간동안 녹화 현장을 방청했다. 93년 5월 9일 첫 방송을 시작해 대한민국 음악 쇼를 이끌어 온 열린음



KBS 김인규 사장이 본회 회우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악회는 이날로 875회,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가수를 통해 전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제작진의 노고가 돋보였다. [7]

#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⑤

## 기도와 사랑의 놀라운 힘

지금도 할머니는 많을 테지만 병을 고치는 할머니의 손은 옛날처럼 흔하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 그 약손이 시골에 많이 있었지.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 먹어 체한 손주의 배를 저칠어도 따뜻한 손으로 슬슬 쓰다듬으면서 사랑의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던 할머니를, 아픈 배를 기적처럼 고쳐주던 신기한 일을, 지금의 노인들은 기억하고 있다.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죽음 앞에 누운 아픈 아이들을 빈사지경에서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고통으로 부터 해방시키는지 지어낸 이야기 같은 실화에서 보자.

미국의 저명한 자연치료의사 앤드류 웨일(Andrew Weil)이 쓴 「자연건강, 자연 약 품 (NATURAL HEALTH, NATURAL MEDICINE)」이란 책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는 기도와 사랑이 치유력이란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애리조나대학 의료센터에서 몇 년째 소아과집중치료실 간호사로 일하던 어떤 여성의 목격담이다. 그 간호사는 그곳에서 아무리 보아도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심한 머리 손상을 입은 어린이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 케이스를 여러번 목격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로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의 뇌파는 굴곡 없이 편평한 평단화(平坦化·위독한 뇌기능장애의 지표)를 나타내고, 담당의사들이 가망없다고 진단한 그런 어린 환자들이었다.

병실밖에는 '도너(DONOR·혈액이나 장기 기증자)'로 부터 신장이나 심장을

적출(떼어냄)하려는 장기이식팀의 의사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담당의사들의 놀라움과 장기이식팀 의사들의 실망을 아랑곳없이 죽음직전에서 되살아난 케이스가 12회나 있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주목한 것은 죽음의 문전에서 되돌아온 그 12명의 아이들이 모두 라틴아메리카계(系)였다는 점이다.

그 간호사의 회고는 이렇다. “그 라틴 아메리카족 아이들과 같은 정도의 중상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월세없이 기도와 하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을 보았지요. 그 아이는 대답을 할 수 없는 혼수상태인데도 말이에요. 온기족이 병상에 인사불성이 되어 누워있는 아이에게 지극한 사랑을 기도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그 광경이야말로 감동적인 치유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앵글로색슨

족 아이는 혼자였어요. 썰렁한 집중치료실의 병상에 돌보는 가족은 보이지 않고

## 패밀리 텔레퍼시로 치유사례 많아

을 입은 앵글로색슨족의 아이들중 소생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라틴아메리카족 아이들이 혼수상태에 빠지면 그 아이의 가족 전원,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상을 둘러싸고 꿇어

혼자 누워있는거예요.” 이 이야기는 민족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이 치유력이란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사람은 원래 가족 중의 한 사람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한사람이다. 가족과 공동체를 끈

끈하게 묶는 빗줄이 사랑이란 사실을 위의 이야기로써 확인하게 된다.

기도와 사랑이 치유력일수 없다는 이야기를 과학이란 이름으로 내건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 플라톤의 말이 대답이 될까.

병을 고치는 치유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패밀리 텔레퍼시(Family Telepathy)란 말은 어머니와 아들의 정(情誼)가 전깃줄 같다는 것을 우화(寓話)처럼 보여준다.

중국 후한(後漢)때 이야기이니까 2000년이나 된 고담(古談)이다. 후한서(後漢書)에 기록된 사자성어(四字成語)인 ‘서지기신(噬指蓍薪)’이 이야기의 요지이다. 서(噬)는 깨문다는 뜻이요, 지(指)는 손가락, 기(蓍)는 버린다는 뜻이요, 신(薪)은 땀감이란 뜻이다. ‘손가락을 깨무니 땀감(장작)을 버린다’는 사자성어의 뜻은 무슨 이야기인가?

후한시대에 홀어머니를 모시고살던 채순(蔡順)이란 젊은이가 땀감을 하러 산으로 들어간 뒤 느닷없이 채순을 찾아온 손님이 있어 어머니가 채순이 돌아오기를 바랐으나 오지않으므로 손가락을 깨물자 산속에서 나무하던 채순이가 어머니의 소망을 알아차리고 땀감을 내뿜어치고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는 이야기가 ‘서지기신’의 줄거리이다. 황당한것 같은 이야기가 후한서에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패밀리 텔레퍼시가 실존한다는 증거가겠다.

이건 객담(客談)이지만 건강에 관한 무료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세상에 내가 쓰는 이야기가 무슨 소용에 닿겠나 싶으니 써놓고도 더러 찔찔할 때가 있다. [4]

연초, 1월 3일 부터 11일간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이상한 입원생활을 했다.

목욕재계를 하고 신년을 맞고 싶어 그믐날 오후 사우나에 들러 정성껏 닦고 돌아와 일찌감치 잠 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초하루 새벽 2시 부터 몸에 오한이 나기 시작, 두시간이나 떨고난 뒤 귀찮은 미열을 안게 되었다.

정월 초하루 아침, 차례와 세배가 기다리고 있다. 오랜 일본 생활에서 몸에 밴 ‘양력과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집 애들은 “양력 설은 시집에서 음력 설은 처가에서”라면서 은근히 환영하는것 같았다.

미열을 띤 몸으로는 차례상 채비가 힘겨워 지방과 제주(祭酒) 병을 장남에게 넘겨주고 침실로 가 버렸다.

차례에 이어 벌어지는 세배에서는 절을 받는 차례 조차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다. 마침 신정 연휴라 모든 병원과 약방이 문을 닫았다. 애들은 응급입원하기를 우겼으나, 그놈의 몸을 버릇인 “괜찮아”를 연발, 언젠가 약방에서 사다놓은 진통해열제로 이틀간을 버티어 내기로 했다.

3일에는 모든 기관이 문을 열었다.

연말에 계속된 폭설을 치우느라 며칠 동안 과로 한것이 몸살로 이어지고, 연휴동안 미열에 시달린 자초지종을 주치의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 좁아진 병실과 대기병실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 왼쪽 아래에 하얀 반점이 나타났다. 감기가 도져 폐렴에 까지 발전 했다는 것이다. 당장 입원명령이 내려졌다.

남자 82세 호흡기 환자가 들어갈수 있는 입원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65세가 훨씬 넘었으니 독방사용은 안되고, 보험금 지원으로 싼 값으로 들어갈수 있는 5인병실은 만원으로 언제 빈자리가 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부담으로 2인병실이나 4인병실에 들어 가는 수밖에 없었다. 방값은 하루에 2인병실이 15만원, 4인병실이 7만 5천원, 5인병실은 2만원 정도였다.

환경 스트레스가 적고 조용한 방에서 독서라도 하고 싶어 2인병실을 희망했다. 안내된 방은 10층(101병동) 중앙에 자리잡은 9호실, 두개의 침대가 입구쪽과 창가쪽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데 창가



김귀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쪽을 차지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달려 있고, 북동쪽을 향한 전면유리창 너머로는 눈 화장을 한 아차산(峨嵋山)이 손에 잡힐듯 하고, 그 완만하고 고운 능선이 내려 앉은 기슭을 위커힐호텔 쪽으로 달리는 차 들로 붐비고 있었다.

주치의의 오후회진이 끝난후, 항생제가 든 링게르주사 바늘을 왼손등 혈관에 꽂

고 누워, 앞으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도 꾸념할 상냥한 동료가 옆 침대에와 주기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저녁해가 기울 무렵 옆침대에 건강한 30대의 환자가 들어왔다. 몸 안 어느 내장속에 생긴 돌(結石)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에 다녀온 젊은 환자는 심한 마취제 탓인지 깨어 나지 못한채 요란하게 코를 끌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서야 조용해진 이 환자는 다음날 낮 다른 병실로 이동해 버렸다.

새환자를 맞기 위해 말끔히 청소를 해

놓은 옆침대에 두번째로 들어온 환자는 사지를 못 쓰는 치매환자였다.

보호자가 붙어 수시로 배설물을 치운다고는 하지만, 남는것이 꼬리를 끌곤했는데 이 환자도 하룻만에 5인병실로 가버렸다. 옆 침대의 환자가 매일 바뀌는 이유를 병실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 침대는 늘 비어 있어 5인병실에 들어 가고 싶은 환자들이 대기차 하루 이틀씩 묵고 간다”는 설명이다.

조용한 병실에서 동병상련할 꿈은 사라지고, 퇴원할때까지 가래에 피가 섞이는 환자, 어지럼증의 70대 환자등과 뜻하지 않은 동거 생활을 했다.

이와같은 부조리의 병실 운영은 비단 이곳 뿐만이 아닐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환자의 증가는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최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에서의 약값을 인상한다는 계획은 보통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혜택 탓인지 사람들은 감기만 들어도 종합병원을 찾고, 보험금 혜택이 있는 5인병실 입실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당국자의 견해이다.

독방과 2인병실은 줄이고 5인병실 등을 늘리는 한편 입원료가 안 붙는 응급병실 같은 곳을 대기병실로 이용하는 방법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저승에 가려면 장례식장 들르기 전에 병실을 거쳐야 한다. 그 병실이 애처롭기만 하다면 죽지를 말아야 할 것이다. [4]



**동행**

코바코와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기업과 방송이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친구,  
국민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의 친구들과  
멋진 하모니를 이뤄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는 방송광고 영업대행을 통해 방송사의 안정적인 경영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www.kobaco.co.kr](http://www.kobaco.co.kr)

명월(明月) 황진이(黃眞伊)는 개성의 명기였다. 시를 잘 짓고, 노래를 잘 불렀으며, 용모도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황진이는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천대받던 기생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명사들과 거리낌 없는 교분을 나누며 자유분방하게 살다간 여걸이다. 박연폭포,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과 더불어 '송도삼절'로 꼽히던 황진이야말로 명기 중의 명기였고 한국 여성사·풍류사를 빛낸 걸출한 여인이다.

황진이는 성종 때에 개성 병부교 근처에 사는 진현금(陳玄琴)이란 미천한 신분의 여자가 어떤 바람둥이의 꺾임에 빠져 임신을 해서 태어났으니, 법적으로 말하면 사생아였다. 단지 그 사내가 이름은 안 알려주고 성만 황가라고 했기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 황씨가 되었다. 그리고 이웃집 총각이 자신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어버리자 충격을 받아 기생이 되었다고 했다. 스스로 지은 기명은 명월이었다.

해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명기 황진이의 이름이 널리 퍼지자 사방에서 풍류호걸들이 발떼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황진이는 웬만한 사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주와 미모가 빼어난 만큼 호락호락 아무 사내에게나 해프게 정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신 부나비처럼 달려드는 양반의 자제들이나, 잘난 척 거드름이나 피우는 당대의 내로라하는 명사들을 마음껏 농락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황진이가 화담 서경덕을 유혹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30년 수행의 고승이라는 지족선사(知足禪師)를 파계시킨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다. 어느 비 오는 날 황진이가 소복을 하고 지족암을 찾아갔다. 그리고 선사에게 말했다.

“소녀는 병부교 부근에 사는 진이라고 하옵니다. 대사님의 우레 같은 고명을 듣고 이렇게 찾아בק게 되었나이다. 소녀는 일찍이 지아비를 잃고 청상이 되었는데, 마침 의지하고 살 자식 하나 없기에 궁리를 거듭하다 이 몸을 부처님께 바치고자 결심하고 대사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나이다. 원컨대 소녀의 청을 물리치지 마시고 제자로 거두어주소서!”

지족선사가 보기에 깊은 산중 암자에서 불도만 닦고 살았지만 참으로 이런 절색은 본 적이 없는지라 마치 관세음

보살이 현신(現身)하여 자신의 수행을 시험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보니 자칭 청상과부라는 젊은 여인의 소복이 비에 젖어 탐스럽게 굴곡진 싱싱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가. 지족선사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 머리가 다 어지러웠다.

이것이 필시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둔갑한 여우가 틀림없어! 두려운 생각이 든 선사는 열심히 염주를 굴리며 속으로 쉴 새 없이 염불을 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눈을 뜨자 이게 무슨 변고인가.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청상과부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 황진이의 나이는 30세 전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 물이 오른 풍만한 나신을 보자 선사는 눈알이 팽팽 돌아 미칠 것만 같았다. 에라, 모르겠다! 선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청상과부 아닌 황진이에게 덤벼들었다. 그렇게 해서 지족선사의 30년 수행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황진이가 그 다음으로 도전(?)한 상대는 저 유명한 도학자 서경덕이었다. 당시 그는 개성에서 박연폭포로 가는 길가 오른쪽 화담이라는 연못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은거하고 있었다. 어느 날 황진이가 서화담을 찾아왔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도 돌아갈 생각을 않고 있더니 갑자기 “아이구, 배야! 아이구, 나 죽네!”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땡구는 것이었다. 물론 폐병이었다.

화담이 한 채밖에 없는 자신의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그 위에 눕혔다. 황진이의 비명은 잦아든 대신 신음으로 바뀌었는데, 그 신음이 마치 사내를 유혹하는 교성처럼 요상했다. 화담은 옆방

## 溫故知新

# 風月속에 살다간 황진이



황 원 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으로 건너가 밤늦게 책을 읽었다. 황진이가 이 영감이 언제 건너와 덮치려는가 하고 쉴 새 없이 교태성 신음을 날려 보냈으나 화담은 밤새 요지부동이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황진이가 또 화담에게 찾아갔는데, 그날은 비 오는 날이었다. 황진이는

먼저 지족선사에게 써먹어 성공한 그 수법을 다시 동원했다.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고 비에 흠뻑 젖어 육감적인 곡선이며 터질듯이 팽팽한 속살이 환히 비쳐 보이는 차림으로 나타났다. 황진이가 온갖 절기와 비기를 다 펼쳐 교태를 부려도 빙긋이 웃기만 한 채 요지부동이었다. 마침내 천하의 황진이라도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황진이와 장장 6년간이나 함께 동거한 여세계 재수 좋은 행운의 사나이가 있었다. 바로 선전관을 지낸 이사종(李士宗)이란 사람이었다. 이사종은 당대의 명창이요 풍류객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의 노래에 반하고 다음에는 서로의 인물에 반해 더불어 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기발했다. 그것은 6년간 함께 살되 3년씩 상대방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살기로 하고, 그 동안의 생계 또한 집주인이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황진이와 이사종은 이미 5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계약동거를 실행한 선구자였던 것이다.

황진이가 유명한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를 읊어 유혹에 성공한 종실 벽계수(碧溪守)를 만난 것은 황진이의 명성이 나라 안에 널리 퍼진 다음이었다. 천하제일의 풍류남아를 자처하던 벽계수가 송도로 간다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다. “자네도 마침내 송도 명기

황진이의 치마폭에서 놀아보게 됐네 그러!” 그러자 벽계수가 코웃음을 쳤다. “흥, 아무리 황진이라도 내게는 어림도 없지! 만만히 보고 덤비기만 하면 다리야 나 살려라하고 도망치게 만들어버리겠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송도로 내려온 벽계수였다. 벽계수의 왕립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졌다. 과연 벽계수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황진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며칠 뒤 벽계수가 만월대로 달구경을 나갔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는데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선녀의 목소리 같이 아름다운 그 노래의 주인공은 황진이었다. 황진이가 다가와 벽계수의 말고삐를 잡자 벽계수가 자신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와 황진이의 손을 더듬어 꼭 잡았다. 그렇게 하여 벽계수는 황진이와 한 해 동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천부적 미모와 재주를 타고났건만 남녀차별과 신분차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명월이란 기생으로 일생을 보내야 했던 황진이었다. 남자에 못지않게 빼어난 글재주를 지녔건만 여자로 태어났기에 과거를 보고 벼슬길에 나갈 수도 없었고, 신분이 천한 여자의 사생아로 태어났으니 정상적인 혼인으로 평온한 가정생활을 꾸려갈 수도 없었다. 이러한 모진 숙명이 황진이로 하여금 자존심 강한 당대의 명기로 만들고, 술한 남성편력의 길을 헤매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황진이가 기생이라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시들만 남긴 것은 아니었다. 황진이는 우리나라의 빼어난 산수의 경관을 사랑하여 자연을 소재로 구슬같이 아름다운 시도 많이 읊었다.

황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언제 죽었는지도 불분명하다. 40대에 죽었다고도 하고, 60이 넘어 죽었다는 설도 있다. 임진강 건너 북한 땅 판문군 찬우물고개에 있다는 황진이의 묘는 마음대로 가 볼 수가 없고, 임진각에 가면 조각공원 안에 황진이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1982년에 세운 시가비(詩歌碑)가 있다. [4]

## 전립선 무료검사 무기연기

### 토요건강포럼, 3월엔 ‘노후설계’ 강의

가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미디어가 성관계 보도에 있어서 성(性)과 연결이 돼있지 않나 하는데 대한 비평과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가야 올바른 미디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성에 대해 무분별하게, 또 성이 왜곡되게 나타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젠 ‘성’자가 빠지면 장사가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인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성범죄가 옛날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포르노와 성 사이트의 범람이 성범죄를 부추기지 않았는가 생각된다며 특히 최근에는 성과 섹스는 별개라면서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하룻밤 엔조이 얘기를 실제로 착각해 일부 계층이 이를 따라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미국 등 외국의 경우 한 연인을 만날 때는 한사람만 만나는 게 일상이고 그 사람과 헤어져야만 다른 사람을 만나 ‘항다리 걸치기’를 하지 않는 데 최근의우리 풍조를 보면 미국에선 성을 엔조이 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그대로 믿고 일주일 내내 사람을 갈아치우며

만나는 ‘문어다리 걸치기’ 행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의가 끝난 후엔 이웃 생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이 박사에게 못다한 질문을 하며 즐거운 토요일 한때를 가졌다. 이날 특히 손익근 회우가 스폰서를 자청해 박수를 받았다.

3월 토요(건강)포럼은 대한암협회 전 부회장이며 과학평론가인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이며 대한암협회 고문이 ‘고령사회와 노후설계’에 대해 강의하기로 했다. 이광영 고문은 한국일보 출신으로 본회 회우이기도 하다.

강의는 역시 을지로 입구에 있는 ‘이운수 비노기과’에서 3월19일 토요일 오후1시 50분부터 진행한다. [4]

이보길 편집위원 記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전립선협회가 공동으로 이달 중에 실시하기로 했던 전립선 무료진료가 보건당국이 특정단체의 진료는 배제하고 오지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진료하라는 지침과 또한 무료진료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무료진료행사를 기다리던 회우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됐는데 본회는 한국전립선협회와 협의해 진료받기를 원하는 회우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무료진료 행사에 따른 일정 등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2일 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토요(건강)포럼에서 연사로 나온 한국성과학연구소 이운수 박사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

‘50년 큰 사랑,  
MBC가 나눕니다’



이지선  
MBC 나눔 홍보대사

김혜원  
서울농학교 3학년

2011 MBC

나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씨는 2000년 교통사고로 전신 55퍼센트에 3도 화상을 입고도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선 씨, 그녀와 함께 창사50주년을 맞는 MBC가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 인론가 소식

### 신문방송 편집인 회장 박보균씨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는 지난 2월 10일 박보균(사진) 중앙일보 편집인을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개편된 주요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부회장 = 정동식(경향신문 전무) 홍찬식(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 송희영(조선일보 논설주간) 김성수(연합



상무이사 겸 논설실장) 고대영(KBS 보도본부 본부장) 김성우(SBS 기획실장 서영관(매일신문 논설위원실장)

△ 감사 = 이목희(서울신문 편집국장) 이준희(한국일보 논설위원)

△ 운영위원장 = 심규선(동아일보 편집국장)

### 문화방송사장 김재철씨 연임

문화방송(MBC) 사장에 김재철(사진) 현 사장이 연임됐다. MBC 대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월 1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 면접을 진행해 김재철 현 사장을 차기 대표이사(사장)로 내정했다.



MBC 김재철 사장은 1953년 12월 18일 경남 산청 출생으로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매스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울산 MBC사장과 청주 MBC사장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MBC 사장을 맡고 있다.

### 코리아 타임스 창간 60주년

코리아타임스 창간 6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월 13일 '색채의 미술사 사각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됐다. 장재구(왼쪽부터)한국일보 미디어그룹 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박진 한나라당 의원, 라르스 바



리외 주한 스웨덴 대사 등 참석자들이 사각전을 관람하고 있다.

### 언론재단 '뉴스미디어의 미래' 세미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스마트 미디어 환경 도래와 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한철 덕성여고 교사, 김택환 중앙일보 멀티미디어랩 소장, 오태규 한겨레신문 디지털미디어 본부장, 김훈순 한국방송화회장, 김민배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 양승목 한국언론화회장(주제 발표), 홍승기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이종수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화회장,



정병진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최창근 KBS해설위원, 박성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차재영 한국언론정보화회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삼성언론상 6개 부문 선정

삼성언론재단은 지난 23일 삼성언론상 수상자로 논평 비평상에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취재 보도상에 국민일보 김호경차장대우의 2명, 어젠다 상에 정성

욱 PD 외 2명, 사진 영상 편집상에 박종식 한겨레신문 기자, 특별상에 SBS '미래한국리포트'와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각각 선정했다.

### 관악언론인회장 배인준씨, 언론대상 김인규 회우

서울대 출신 언론인모임인 관악언론인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에서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사진 좌)을 제 6대 회장으로



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김인규(본회 회우·사진 우) KBS 사장이 제8대 서울대언론인 대상을 수상했다.

## 조광식 회우 별세

조광식 회우가 2월 18일 타계했다. 향년 74세, 2월 20일 오전 7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대한언론인회는 2월 19일 오후 4시 30분 홍원기 회장을 비롯, 김광희 남시욱 문명호 박경석 성낙오 신대근 안평선 이병대 이태영 이해복 이흥우 임학수 정은종 회우 등이 참석한가운데 추도식을 가졌다.



고인은 1938년 생으로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 문리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 일간스포츠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고인은 그후 라디오서울

개국 사원으로 입사, 체육담당기자로 활약하다 1965년 동아일보로 옮겨서는 체육부장직을 역임했다.

고인은 또 1981년 문화방송 스포츠 초대 국장으로 야구단 청룡 초대단장과 상무, 올림픽방송 기획실장, 아시아체육기자연맹 집행위원, 국제체육기자연맹 집행위원,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 강사, 한국체육언론인회 특임 고문, 동아일보 사우회(동우회) 이사직을 맡아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 조광식 형 영전에

이병대(본회 부회장)

이 무슨 변고입니까.

지난번 문병갔을 때 퇴원 후 자세한 얘기를 나누자고 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조형과 저는 지난 1965년 같은 해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언제나 붙어 다닌 형제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조형은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을 졸업하던 1963년 일간스포츠사에 입사 한 뒤 라디오 서울과 동양 텔레비전 사회부에 근무하다가 스카우트되어 동아일보에 왔었지요.

스포츠를 좋아했던 조형은 스포츠 이야기만 나오면 좌중을 압도했고 선수들의 개인기록을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내 설명하듯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곤 했었지요. 60년대 중반 밤늦게 까지 당시 동대문야구장에서 경기내용을 같이 기록하던 일이며 부근 음식점에서 막걸리로 허기를 달래던 옛 일들을 이제 다시는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형은 특히 동아일보 체육면의 야구 기사를 과학적 수치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기사와 해설로 독자들로부터 찬사를 듣기도 했었죠. 1965년 가을 이던가요. 그때 임 학수 부장과 김 광희 선배 그리고 조형과 나는 창덕궁에 소풍을 갔었죠. 그 때의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들이 만날 때 마다 웃게하는 메뉴였는데 이제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형은 그 이후 문화방송에 다시 스카우트되어 스포츠 국장과 MBC 청룡 야구단장을 맡아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스포츠보도와 야구단 발전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 이후 LG스포츠 상무 이사로 자리를 옮겨 LG트윈스 야구단장을 맡고 이어 한국체육대학에서 사회체육강의를 맡기도 하셨죠. 특히 조형은 지난 2001년 동아일보사 사우회 창립에



조사를 읽는 이병대 본회 부회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형등이 앞장서 80년 동아일보 역사에서 처음으로 퇴직 사우들의 구심체인 사우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조형은 현재 2대 총무를 역임하면서 동우회의 제반업무를 비롯하여 애경사를 빠짐없이 살피셨습니다. 현재도 총무이사로 재직 중인 조형의 상사를 맞으니 동우회원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조형은 동우산클럽을 창립, 초대회장으로 계시면서 북한산등 매월 산행에 빠지지 않고 참석 하셨는데 그렇게도 잘 걸던 조형이 이렇게 떠나시니 그 놀라움과 슬픔을 무어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형은 오로지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외길을 걸으셨기에 체육관련 기자모임이나 협회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조형 ! 조형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 태산같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홀연히 떠나버리십니까.

조형 ! 가슴이 미어집니다. 못 다한 이야기는 뒷날 하늘나라에서 나눕시다. 남에게 항상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살았던 조형은 분명 형수님께서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에 왕생하실 것입니다.

조형 ! 훌륭하게 키운 4형제가 이제 조형이 못 다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극락왕생 하소서

## 회우동정

(가나다순)

### ‘거대 중국의 진면목’ 특강



박찬호(한국통일문제진흥회 이사장) 원로회우=2월 28일 11시 서울 보훈회관 강당에서 성동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성동지회 운영위원 90여명 대상을 ‘거대중국 개혁 개방 이후의 진면목’ 주제로 특강.

### 네팔 문화유적지 탐방



김종열(전 국민일보 체육부장·사진左), 박연호(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사진中), 이규섭(전국민일보 논설위원·사진右)회우=지난 2월 23일부터 인도 문화유적 탐방과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뒤 3월 8일 귀국.

### 가족과 함께 미수연



김춘빈(전 대한일보 정치부장)회우=지난 2월 22일 가족과 함께 미수연.

### 업무차 베트남 출장



나용경(전 일간스포츠 교열부장) 회우=2월 18일 업무 차 베트남 출국, 25일 귀국.

### 동우회 몽도상수상



박경석(동아일보 논설위원)회우=2010년 12월 14일 열린 동아일보 사우회 2010 정기총회에서 몽도상을 수상했다.

### 평화언론포럼 회장 연임



안중우(전 연합통신 이사대우 전무국장)본회 이사=평화언론포럼은 지난 2월10일 시내 도원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제8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제4대 회장에 안중우 현 회장을 재선임 했다.

### 장한고대언론인상 수상



양휘부(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회우=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양휘부회우는 지난 1월 17일 고대언론인회가 선정하는 장한고대언론인상(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 출판기념 및 사진전시회



이광영(전 한국일보 편집위원)회우= 3월 2일 하오 2시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람있고 활기찬 노년-삶의 현장을 가다’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시회를 갖는다.

### 동아일보 동우회 부회장



이병대(전 KBS 해설위원) 본회 부회장=2월 15일 열린 동아일보 사우회(동우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동우회는 2010년 12월 연말 총회 때 회장과 이사로만 구성된 조직에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회칙을 개정, 이날 이 부회장을 선임했다.

### 상명대 교수로 임용



이희우(전동아일보 국장대우·시사만화가)회우=지난 2월 19일자로 상명대 문화예술대학원 만화영상과 교수로 임명됐다. 이 회우는 1980년부터 28년 동안 동아일보에 시사만화 ‘나대로’를 연재했다.

### 소강체육대상 특별상 수상



조동표(전 일간스포츠 논설위원)회우= ‘영원한 현역기자’ 조동표회우(86)가 지난 2월 16일 제3회 소강(민관식)체육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 기우회 2011년 첫모임 3월11일 바둑 세계기원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새해 첫 분기모임을 3월 11일(금)오후 2시 종로2가 국립관 뒤편 바둑세계기원(02-325-2025)에서 갖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手談을 통한 친목과 우의증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우수첩 바로 잡습니다

103쪽 ‘6·25 참전동우회’ 명단 중 정연복 회우(참전) 추가

## 언론사社友會 소식

### 경향신문

원로 회우에 금일봉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이형균)는 지난 2월 24일 금년도 첫 이사회를 열고 사우회 운영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사우회는 이날 임원회의에서 팔순, 구순 원로 회우에 금일봉, 장인 장모 및 시 부모상에도 화환을 증정하기로 결의했다.

### 중앙일보

TBC 종방 30주년 행사

중앙매스컴 사우회(회장 김재봉)는 지난 11월 30일 TBC종방 30년을 맞은 이날 전현직 사우들 500여명이 중앙일보 본사에 모여 ‘TBC 는 영원하라’ 행사를 가졌다.

### 동아일보

회보 19호 발행

동아일보사우회(회장 김광희)는 지난 2월 15일자로 회보(동우회보) 19호를 발행 했다. 타블로이드 20면으로 나온 회보엔 이병대 본회 부회장(동우회 이사)이 ‘종합편성 TV 채널 A 성공의 길’ 관련 ‘수준 높은 보도로 편파왜곡 막아라’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이밖에 조강환 회우의 ‘우수쿠훈트 개발 채널A 해외시장 공략술’ 박경석 회우의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김담구 회우의 ‘세정고금동’ 권도홍회우의 ‘100세를 사는 힘’ 김성환 회우의 ‘화가와 정신노동’ 등의 글이 실려 있다.

### 한국일보

임원진 대폭 개선

한국일보사우회는 지난 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개선, 김충한 본회 회우를 제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회장은 2009년 정기총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권혁승회우(본회회우)의 잔여 임기를 대행해 오다 이번 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뽑혔다.

이날 선임된 임원중 본회 회우는 다

음과 같다.

고문 윤임술 정태연 권혁승 조두흠 손일근 제재형

감사 홍원기(본회 회장) 부회장 김해도(본회 이사) 한기호(본회 상담역)

### 조선일보

회보 9호 발행

조선일보사우회(회장 인보길)는 지난 2월 14일자로 회보 조우 9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20면으로 나온 회보에는 1면에 방우영 조선일보 회장의 ‘청춘고백 열창’, ‘조선일보 방송시대 개막’ 소식과 김용발 본회 회우의 화제의 책 ‘6·25 와 이승만’ 이 소개돼있다.

### KBS

임원개선, 회보 106호 발행

KBS 사우회는 지난 2월 22일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개선을 비롯, 2010년도 수지결산,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새로 선임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강대영 (전 KBS 부사장)

△ 부회장 : 김승중(전 편성본부장), 이흥기(전 보도제작국장), 정근춘(전 TV중계국 부장) 전봉창(전 경영본부장), 홍금표(전 라디오국장)

△ 사우회는 또 지난 2월 1일자로 회보 106호를 발간했다. 회보에는 ‘그때 그시절 KBS 이야기’ 출판 소식과 ‘정의는 모두 진실일까’ 정구호(본회회우 전 KBS 사장)의 글을 비롯, KBS 가톨릭 사우회 회장 서병주 본회우회우의 동정이 실려 있다.

### CBS

회보 14호 발행

CBS 사우회(회장 안상현)는 지난 1월 1일자로 사우회보 제14호를 발행했다. 회보엔 안상현 회장의 ‘우리들 마음의 고향 CBS’ 글이 실렸다.

### ▶ 연회비 납부 ◀

납부계좌 : 농협 056-01-105628

2011년도 김규문 김상수 김한영 나용경  
나필성 노영순 노철용 문준철  
박법진 박용근 서동구 서옥식  
송경섭 신경식 신정호 안상현  
윤양중 윤종보 이광영 이규섭  
이병국 이창열 이학주 이현구

임현태 장덕상 전남석 정연복  
지정식 최금녀 허경구  
2010년도 김석성 서동구 신경식 엄종석  
이광영 윤기로 윤종보 장덕상  
최금녀  
2009년도 김석성 서동구 윤종보 장덕상

### ▶ 주소변경 ◀

김두근 회우= 010-8395-4006

박우정 회우=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729-22 보라매 롯데캐슬 323호

서동구 회우= 010-3794-6605

송형묵 회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98 WE씨티자이 214동-1803호 031-967-0292 011-385-0292

심의표 이사= 010-3708-4463

양성묵 회우= 010-3744-3745

여영무 회우= 010-3896-6677

전남석 회우= 019-9456-0929

전민조 회우= 010-5066-4175

정구호 회우= 010-5202-2050

정성진 회우= 종로구 평창동 596 삼성 아파트 101동 1403호 02-737-6092 017-234-6092

정연복 회우= 02-925-1523(사무실) 010-7934-9966

최금녀 회우= 010-2247-0110

## 회우子女동정

▲박찬호 원로 회우 차남 박대종 교수(경제학 박사·KIET 연구위원)= 2011년 신학기부터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및 석사코스 이수학생을 상대로 환경정책론을 강의.

## 회우경조사

▲문제안 원로 회우=2월 14일 상배, 발인 1월 16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김영환 회우 모친상=2월 18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월 20일

# 구제역 2차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 매몰지 침출수 오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1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매몰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질·환경·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40개 민관조사팀이 매몰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1

### 2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3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민간 환경전문가 감시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

### 3 침출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막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매몰지의 경우, 침출수를  
뽑아내 멸균 소독한 뒤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3

### 4 철저한 수질 관리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4000여 곳의  
수질을 검사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4

SAMSUNG

## 당신은 WISE합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여유롭고 (Wealthy)  
 누구보다 통찰력있고 (Insightful)  
 누구보다 진실되고 (Sincere)  
 누구보다 열정적인 (Enthusiastic) 분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권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빛내는, 애니콜 WISE



### Samsung *Anycall* **WISE** classic

프리미엄 & 클래식 디자인  
 넓고 편리한 키패드  
 큰 글씨 메뉴 & 벨/진동 강화  
 휴대폰 미사용 알림기능  
 지상파 DMB (내장형 안테나)  
 T Map 내비게이션 & 골프



### Samsung *Anycall* **WISE** modern

심플 & 모던 디자인  
 넓고 편리한 키패드  
 큰 글씨 메뉴 & 날짜 확대  
 문자자동완성 기능  
 간편한 카메라 기능  
 만보기 & FM 라디오